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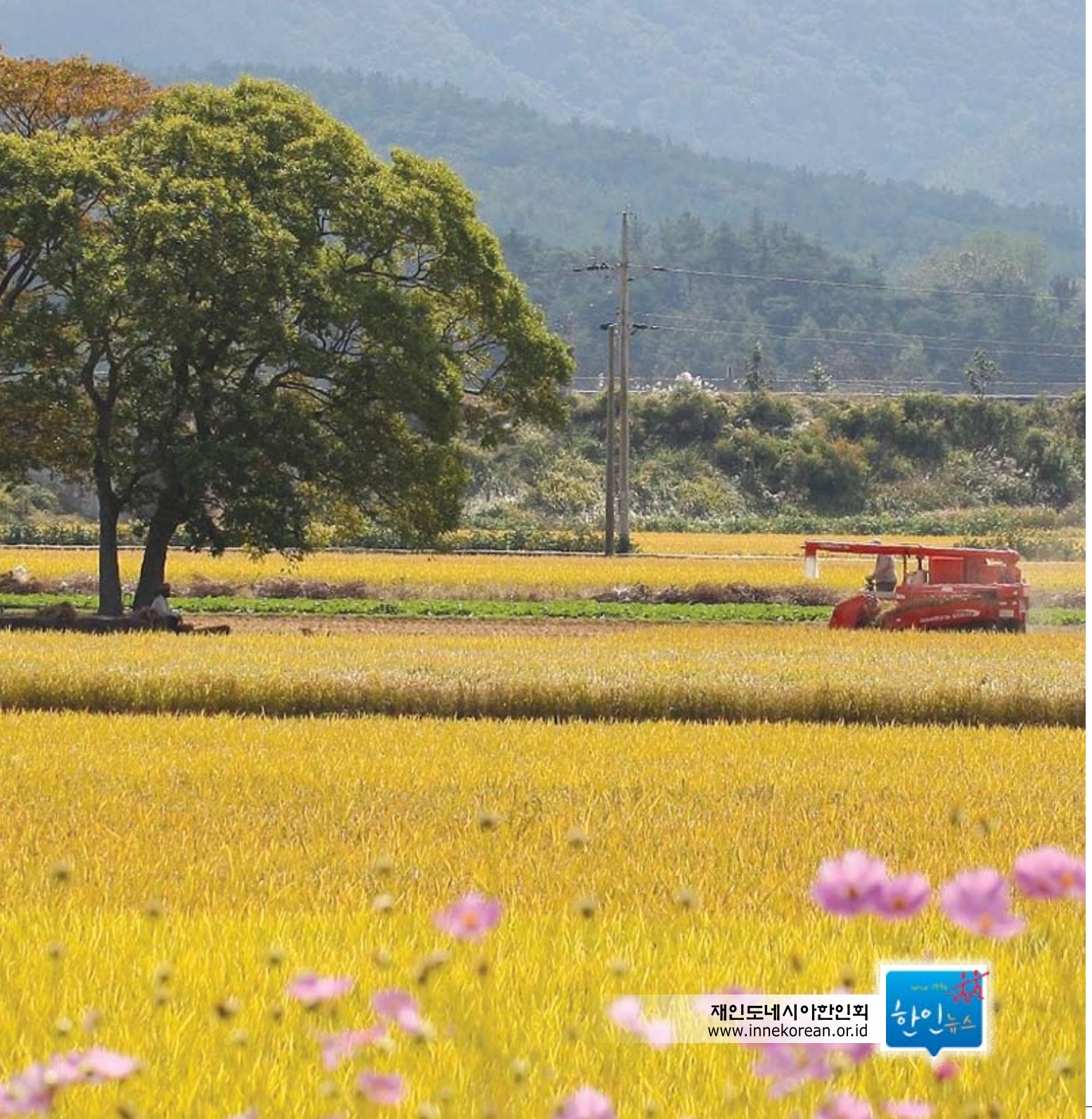
한인뉴스

2013

9



VOL. 207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Samsung GALAXY S4



Samsung GALAXY S4 | Life companion

- Android 4.2 Jelly Bean • 1.6GHz Quad Core + 1.2GHz Quad Core Processors
- 13MP (Rear) + 2MP (Front) • 5" Full HD Super AMOLED Display
- 16GB Internal Memory • microSD Up to 64GB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대한항공은 발리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예약 및 문의: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당신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인도네시아외환은행 뜨룩출장소 개점 !!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 합니다

고객여러분의 끊임없는 신뢰와 사랑 속에 성장한 저희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이 Tangerang 및 Cilegon 지역 소재 고객 여러분들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lam Sutera(Tangerang 소재)에 있는 Synergy 빌딩(9th Floor)에 Sub branch를 개점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은행으로 성장해가는 외환은행만의 선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개점일** 2013. 7. 1일 (월요일)
- ▶ **업무시간** 월~금 매일 오전 8:45 ~ 오후 3:00
- ▶ **주소** Synergy Building, 9th Floor, Unit 01-02
Jl. Jalur Sutera Barat No.17
Alam Sutera-Tangerang 15143
※ 알람수트라 몰 맞은편
(Website : www.mallalamsutera.com)
- ▶ **취급업무**
 - 통장개설, 입출금, 정기에(적)금, 인터넷뱅킹가입
 - 계좌이체, 국내외 송금, 환전
 - 대출 수출입 상담, 대출 및 수출입 관련 서류 송달



KEB  PT Bank KEB Indonesia

TEL 021-3044-8244
FAX 021-3044-8245
홈페이지 www.kebi.co.id

안인의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 월간 “한인뉴스” 웹진 발행

한인회 홈페이지 회원 등록시 등록된 이메일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수신하시는 내용은 월간 한인뉴스의 목차이며 제목을 클릭하시면 뉴스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혹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월간 한인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회 도메인 innekorean.or.id은 2013년 9월 30일부로 만료됩니다>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3 8

VOL. 206
haninnewsinn@gmail.com





이모저모 안인사의


대사관 신청사 태극기 게양식
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한인회, 인니 어린이 후원금전달
코리안데이
자카르타 aT센터개소
코린도 우드칩 생산공장 준공
코린도vs현대차 법적공방
사진전 감상문 시상식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출간
2013동남아한상대회
2013세계한인회장대회
한국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제2기 출범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취항
산림바이오메스
제2회 한인테니스 대회
JKKS소식


이달의 읽을거리

풍경과 사람 <엄중환>
라마단
인도네시아 약용식물(망기스) <백진협>
헤리티지탐방기 <여수정, 이수진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
최종우돌 인도네시아 표류기(7) <이준규>
소외질병치료제 개발
질밥 그리고... <신성철>
CNN선정 한국의 명소
행복에세이 <서미숙>
Jalan-Jalan Jakarta/국립박물관 <사공경>
신 사회 단체법 <이승민>
테사드림한담 <손인식>
화도소
8월의 영화추천작



 PDF 다운

 E-Book 바로보기



Copyright (c) 2007 인도네시아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
 Korean Association Bldg. Jl.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Indonesia
 Tel: 62-21-5212515, 62-21-527-2054. Fax: 62-21-5212486. Email: innehaninhoe@gmail.com

* KTV 뉴스 동영상 시청

인도네시아 한인 방송 KTV에서 제작한 뉴스를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부터의 KTV 뉴스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았고 앞으로 추가되는 뉴스 자료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홍보 게시판의 기능 강화

기존의 선 등록 후 검색의 방식에서 선 검색 후 등록 방식으로 개편하였고 홍보 방식 또한 유료로 전환하여 월 Rp.6만 / 년 Rp. 60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한인 동포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한인회 후원 & 할인 업체 게시판 추가

음식점, 게스트 하우스, 사진관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한인회 회원분들에게 할인 및 선물의 혜택을 부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인회 회원증 발급, 소지 후 추가 되는 혜택

1. 의료혜택 : 한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중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목동 이대부속병원, 경희의료원, 서울 아산병원, 한양대의료원 국제협력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2. 한인회관 도서관 무료 사용

3. 한인회 후원 업체 매장 할인 적용

2013년 안인외 개인외비 납부 명단(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 연도	금액(Rp)
1	김영선	2013	300,000
2	승은호	2013	300,000
3	신기엽	2013	300,000
4	이인호	2013	300,000
5	김영환	2013 - 2017	1,500,000
6	김재민	2013	300,000
7	신충일	2013	300,000
8	홍문기	2013	300,000
9	홍석영	2013	300,000
10	조규철	2013	300,000
11	정무웅	2013	300,000
12	전영돈	2013	300,000
13	김문호	2013	300,000
14	김일영	2013	300,000
15	강덕재	2013	300,000
16	최양기	2013	300,000
17	황운홍	2013	300,000
18	김문환	2013	300,000
19	황의상	2013	300,000
20	이완식	2013	300,000
21	임성용	2013	300,000
22	강희중	2013	300,000
23	장천수	2013	300,000
24	승범수	2013	300,000
25	최석일	2013	300,000
총 금액			Rp 8,700,000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안인외사무국 안국직원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한인회사무국
모집인원 : 1명 (인도네시아 국적자 우대)
자격요건 : 남자20대-30대
컴퓨터 능숙자 (홈페이지관리)
인니어, 영어가능자

문의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 화 : (021) 521 2515
E-Mail : yasko@indosat.net.id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 례8

이모저모 한인사회.....10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2013 백두포럼

한국기업 CSR 인니지역 특성화

KOICA IT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사업

KOICA 신규 WFK 봉사단원 방문

KOICA ‘인도네시아투자 안내서’발간



표지설명 ▶▶▶

가을의 풍성함이 무르익은 고향 들녘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 doodle

어느새 9월!
 자연은 새로운 계절을 준비합니다.
 어떤 이는 훈하추동의 리듬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연의 시간이 우릴 배려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저 견딜 준비를 할 뿐.
 우리의 몸도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확, 흥만, 결실, 만끽,...

가을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OrMas 법	한국에너지의 미래.....43
인니 산림바이오 매스투자포럼	
JIKS소식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44
포토뉴스	
JIS소식	자카르타의 젓줄 찢리웅강<김다윗>.....47
서울서예대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발급	CNN선정 한국의 명소50.....50
국악사랑	
풍경과 사람 <엄종한>.....33	행복에세이 <서미숙>.....52
추석의 의미 <편집부>.....34	Jalan-Jalan Jakarta/국립박물관 <사공경>...54
인도네시아약용식물(두리안)<백진협>.....38	상속제도 <이승민>.....60
키워드로 읽는 안개속 인도네시아경제	화소도.....66
<신성철>.....40	9월의 영화추천작.....70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68주년광복절축사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하신 김영선 대사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68주년되는 뜻 깊은 광복절로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과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워 오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36년간의 치욕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를 잃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는지 되짚어 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계속의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서 두번 다시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인지 오늘 새삼 다짐하게 됩니다.

동포 여러분, 100년전 우리는 쇠국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일찍이 근대화를 이룬 일본에게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짓밟히고 주권을 잃은 채 온갖 수모와 압제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끈질긴 저항과 독립운동으로 투쟁하던 중 연합국의 총공세에 일본이 1945년8월15일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감격의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해방된 지 3년후 천신만고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2년만에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비록 유일한 분단국가이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에 도움을 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역사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일본이 최근 아베정권의 막가파식 망언과 망동, 침략전쟁과 종군위안부 부정 등 역사 왜곡을 당연시 하고 노골적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가 특히 일본내 여론조사를 통하여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도발적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은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피해를 입힌 국가와 희생자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응분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어제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함께 남북 교류가 더욱 폭넓게 진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가 될 필연임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남북이 하나되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민족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13년 8월15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신기엽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



8월15일, 새롭게 준공된 한국대사관에서 제6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대사관 및 아세안대표부, 재인니 한인회, 코이카, 한인기업 대표관계자, 언론 등 약12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김영선대사의 (박근혜대통령 경축사) 축사 대독, 신기업한인회장의 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영선대사는 대독 축사에 “68주년 광복절이자,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그분들의 고결한 뜻을 기리고 유적과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일에 적극 나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한다” 고 일본의 성숙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신기업회장은 이어지는 축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많은 나라에 도움을 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때, 남북한 관계개선과 폭넓은 교류로 세계의 중심국가인 동시에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민족으로 우뚝서는 그날을 위해 한인동포들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고 말했다. 기념식 행사를 마친 후 대사관 영사동건물 앞에서 기념식수행사를 끝으로 광복절행사를 마쳤다.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동남아남부 협의회 출범식이 8월19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승은호 민주평통 아세안 지역 회의부의장, 박동희 동남아 남부 협의회 회장 등을 포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 자문위원 50명 및 한인 동포 주요 관계자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승은호 부의장은 박동희 동남아 남부 협의회 회장, 황일록 말레이시아 지회장, 봉세중 싱가포르 지회장, 안선근 아세안 지역회의의 간사, 강재영 간사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조국과 지역사회를 위한 소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박동희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주인도네시아 김영선대사는 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관심과 열정, 의지를 모으고 한인동포들

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얻어내는 역할을 자문위원들에게 당부하며 신뢰와 화합으로 모범적인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민주평통아세안 지역회의 승은호 부의장은 “동남아교민사회가 규모가 작아 변방취급을 받아왔던 이전과는 다르게 교역의 규모가 40여 년간 성장해왔다. 민간교류 또한 활발한 이때에 민족 통일 과업에 당당한 주역으로의 자긍심을 갖고 내부를 잘 통합하며 아시안 지역의 교민부터 단결하여 나아가자” 고 말하면서 “미래의 교민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차세대는 조국분단의 현실에 이해가 부족한 만큼 다각적으로 소통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제16기 협의회임원선임 및 사업계획 의결과 활동 방향을 보고에서 대통령을 의장으로한 헌법기관

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동포의 여론을 수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정책방향에 반영하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 일상에서 통찰력을 발휘해 내야 함을 언급했다.

제16기 자문회의는 115개국 3215명의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사회문제를 공유하므로 주류사회로 진입하여 동포사회에서 통일에너지를 결집하는 소통의 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우선 금년 사업계획으로 한국-동남아 포럼, 통일리더십캠프, 탈북자초청 통일강연, 통일 글짓기대회를 의결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중앙대 제성호교수의 통일 강연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제교수는 남북한의 불신과 대립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호성과 대등성을 바탕으로 약속과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관행과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제 16기 민주 평통 동남아 남부 협의회 인도네시아 지회 명단>

강재영 (간사), 공자영, 김광현 (고문), 김문환 (감사), 김민수, 김성국, 김수용, 김육찬, 김철희, 김희년 (인도네시아 본부 부회장), 노예범, 박동희 (회장), 박영수, 박현순 (재무간사), 배형석, 송범수, 승은호 (아세안지역회의 부의장), 안선근 (지역회의간사), 안주영 (본부서기), 엄석준, 이세호, 이승세, 이지완, 이철훈 (인도네시아 본부 부회장), 이희경, 장미숙, 전민식, 최병우, 허영순, 현병선, 현정규 (고문), 홍권표 (이상 32명, 가나다 순).



중기중앙회, 인니서 '2013 백두포럼' 개최 인니 진출확대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모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화 전략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3 백두포럼'을 28일 열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인 젠한국의 자카르타 공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중소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여건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소기업학회 소속의 경북대학교 이장우 교수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생산요소로서 창의성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전략혁신, 상생경영, 융합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송유황 관장은 "차별화된 포지셔닝과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생산요소 추구형 투자에서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로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생산요소비용의 상승, 강성노조의 출현,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부족, 자원 민족주의 대두 등이 인니 시장의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확산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등 신흥 유망시장으로 진출영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게 국내기업에 한정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해외까지 확대해 현지진출 중소기업들의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해외 동반진출을 강화하고 미국 대형유통망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화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두포럼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글로벌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열리고 있다.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KOCHAM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Korea Center, 5th Floor, Jalan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12950, Indonesia *Tel (62-21) 527-7539
 *Fax (62-21) 5296-0586 *E-Mail kocham0909@gmail.com *Website www.innekorean.or.id
 *송금처 HANA BANK *예금주 YAYASAN ASOSIASI KOREA CQ KOCHAM *계좌번호 (USD) 001 0071 001512

Kocham 소개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인 상공인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서 1991년 한인회 산하 6개 상임분과 위원회 중 상공분과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1999년 확대 발족회의를 통해 회칙을 재정하고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KOCHAM)로 공식 발족하였으며, 독자적인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인도네시아 경제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제2차 회칙개정회의를 거쳐 조직을 재개편하여, 회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역할을 통해 한인기업의 발전과 이익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원제 경제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한인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대변인입니다.**
주재국 대사관, 업종별 협의회 및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업계의 단합된 힘과 결집력을 배가시키는 구심점으로써 대변인 역할을 하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심에 섭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 단체 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있는 최고의 해외 경제 단체를 지향하는 한인상공회의소는 KADIN,

APINDO 등 인도네시아의 제 경제 단체,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비롯한 한국의 제 단체 뿐 아니라 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의 주요 멤버로서 국제적인 다양한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투자 분야 뿐 아니라 노사, 통상, 경제, 기업 등 주요정책 논의에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ocham 회원이 되시면

- 매주 최신 업데이트된 주요 동향이 포함된 정기 레터를 받습니다.
- 매주 토요일 주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원은 인도네시아 장관급 미팅에 우선적으로 초대됩니다.
- 직속 노동자문관 및 세무관세자문관의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회원분류	가입비	연회비	비고
이사회원	USD 100	USD 1,000	장관급이상 회의 우선 초대
일반회원	USD 100	USD 300	재인니한국기업
준회원	USD 100	USD 300	제한한국기업 및 재인니외국기업
특별회원	USD 100	-	정부출연단체

*회원가입문의는 남지화 사무국장(0812-8266-485) 또는 김혜아 간사(0813-1064-9663)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 기업 CSR-인니 지역특성화사업 연계 추진



인니 "2020년 한-인니 무역천억 달러 예상"

샤리푸딘 하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장관은 31일 한-인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이 체결되면 양국 무역규모가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샤리푸딘 장관은 이날 코트라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가 자카르타 한-인니 상생협력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한-인니 상생협력 포럼 기조연설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4번째 무역 상대국이자 3번째 투자국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CEPA 협상이 타결되면 양국 무역 규모가 2015년까지 500억 달러,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국 무역규모는 270억 달러였고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는 19억5

천만 달러였다. 또 인도네시아는 작년 한국 교역국 중 수출액 8위, 수입액 11위를 기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한 마을 한 제품' (OVOP) 정책과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연계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OVOP는 2014년까지 100개 마을을 선정, 마을마다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한 가지씩 생산하게 하는 지역 개발·특성화 사업이다.

김영선 대사는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이 OVOP 정책과 연계되면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인도네시아의 지역별 소득원 발굴과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자카르타=연합뉴스)

KOICA, 'IT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사업' 협회의사록 체결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인도네시아 IT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7월 31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 및 국가행정교육훈련원(LAN)과 동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에 서명하였다.

▲ 협의의사록(RoD)에 서명중인 (좌측부터)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Mrs. Endang Wirjatmi 국가행정교육훈련원(LAN) 부원장, Mr. Aizirman Djusan 정보통신부(KOMINFO) ICT 연구 & 인적자원개발원장

자카르타 산티카 호텔 (Santika Hotel)에서 개최된 서명식에는 인니 측 Mr. Aizirman Djusan 정보통신부(KOMINFO) ICT 연구 & 인적자원개발원장(차관)과, Mrs. Endang Wirjatmi 국가행정교육훈련원(LAN) 부원장, 우리 측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등 양국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총 370만 달러 규모의 본 사업은 우리정부의 대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른 중점 지원 분야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ICT 및 공공행정” 사업의 일환으로,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 (치카랑 소재)를 교육 기관으로 활용하여 현지 연수 방식으로 2014년까지 약 1,5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행정과 IT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사업을 통해 KOICA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구축을 선도할 공무원의 IT분야 행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2025년 정보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전자정부 구축을 구상중인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원함은 물론, KOICA가 지원해 설립된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의 교육 역량 역시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남남협력의 틀도 도입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동티모르를 비롯한 여타 저개발 국가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2011년 부산 세계원조총회(HLF-4)에서 모든 협력국들과 합의한 바 있는 남남협력의 모델도 실행하는 계기가 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ICA, 신규 WFK(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원 인도네시아 도착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파견한 신규 봉사단원 8명이 8월 12일 자카르타에 도착하였다.

올해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KOICA 봉사단원들은 2년간 자바,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등지에서 각각 태권도, 컴퓨터디자인, 한국어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한-인니 관계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파견단원들은 지난 14일 김영선 대사를 예방하였고, 이어서 8주간의 현지 오리엔테이션 및 적응 훈련과 파견기관 OJT 등을 거쳐 각자의 임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총 69명의 KOICA 봉사단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 인도네시아 김영선 대사, 인도네시아 코이카 사무소 김병관 사무소장, 52기 봉사단원들

KOICA자문관 “인도네시아 투자안내서” 발간



▲ 단체 사진 (좌측부터 김남규 자문관, 신기업 한인회장, 김영선 대사, 선택호 자문관)

한 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에서 파견한 중장기자문단원들이 8월 29일(목) 11시에 주인니한국대사관 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안내서” 책자 기증식을 갖고, 김영선 대사에게 대표로 발간된 책자를 기증하였다.

KOICA 중장기자문단으로 2012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파견되어 투자자문 및 한국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규, 선택호 자문관은 그간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KOTRA 등 국내기관의 자료를 참조하여 이번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본 투자안내서는 80여 페이지 분량의 핸드북으로 인니의 투자 동향과 투자유치 제도, 투자법인 설립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 개정된 투자조정청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최신판이다.

자문관들은 한국기업들이 동 안내서를 통해 인니 투자여건에 대한 주요 기본정보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인도네시아 대사는 기증식을 가진 자리에서 자문관들의 활동을 격려하며 “동 안내서를 통해 인니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인니의 투자여건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언급하면서, 동 책자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동 안내서는 비매품이며, 대사관, KOICA사무소 및 투자조정청 파견 자문관 등에 문의하여 구할 수 있다.



한인신문은 이승민 변호사를 초청하여 한인 사회 각 단체들과 함께 22일 한국문화원에서 ‘OrMas법’에 관한 한인사회단체의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7월 2일 사회단체 관리법인 OrMas 신규법안을 통과 시켰다.

‘Ormas Asing’ 라는 사회단체 관리법은 신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사회를 막론하고 현지인 사회 조직단체들은 원칙적 허가를 신고해야만 한다. 외국인 단체들은 외무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운영허가를 위해 해당 주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단체법 관할 한인 사회단체는 한인회를 비롯하여 부인회, 청년회, 상공회의소, 미술단체, 동문회, 동호회 등이 포함이 된다. 근년에 들어와 인니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규제완화보다는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현지 실정으로 미루어 봐서 외국인 관련 사회단체 정부령은 외국인의 사회단체를 통한 활동을 더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민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 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모호한 제한규정이다. 즉 인도네시아의 안전과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의 경우 집권자나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종교나 신념을 지나치게 선전하거나,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도 상당히 모호하여 건전한 인권 시민 단체 등은 자칫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인니 정부의 법안에 동조하며, 한인 각 단체들은 서로 단결하여 한인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투자포럼

한 국대사관, 산림청 및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가 공동으로 오는 9월 5일(목),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펠릿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 여건과 전망에 관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련 업체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산림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업부, 경제조정부) 관계관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업체(산림협회, 팜오일생산자협회 등), 국영기업(산림,

농장, 전기) 등에서 참석하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매칭, 네크워킹을 이룰 수 있는 만큼 펠릿 생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 포럼에 참석을 원하면 간단한 사항(업종, 업체명, 이름, 직위, 이메일, 핸드폰 등)을 기재하셔서 이메일(sehi918@naver.com)로 통보하면 된다.

일시 : 9월5일(목) 09:00-14:00시

장소 : Gran Melia Hotel (ground fl. Mutiara 3)

주제 : 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투자 포럼

(Biomass Pellets : towards a new era of renewable energy)

주최 : 대사관,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산림청



반등한인회



KOREAN ASSOCIATION BANDUNG

26 juli 2013

알림

신주소 : Jl. Surya Sumantri no 57 Bandung 40164

전화 : 022 - 2021566

팩스 : 022 - 2021266

Email : korean_association_bandung@yahoo.co.id

최이섭배상

자카르타-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초등학생 교류 프로그램 실시



(보홀섬 초콜렛 힐)



(KISP 영어캠프 참가)



(필리핀 전통 방식 불 피우기 문화 체험)



(발리카삭 아일랜드 스노클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초등학생 11명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7.22(월)부터 7.28(일)까지 교장선생님, 인솔교사와 함께 필리핀을 다녀왔다. 이번에 실시한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은 필리핀 문화 체험 기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한국국제학교(교장 황순태, 이하 KISP) 학생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학생들의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홈스테이 가족과의 만남, 영어캠프 참가, JIKS-KISP가 함께 떠나는 필리핀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으며 JIKS와 KISP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KISP는 오는 1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다시 한 번 만남을 통해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할 예정이다.

11명의 JIKS 참가학생들은 6박 7일 동안 KISP 학생들과 함께 마닐라, 보홀섬, 마닐라 근교까지의 여행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마닐라 도착 첫날, KISP로 이동하여 홈스테이 친구를 만나 약간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던 학생들은 곧 이어진 KISP 영어캠프, 마닐라 시내투어(산티아고 요새, 리잘 공원, 국립 박물관 등)를 함께 하며



(따가이파이 이중활화산)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김승익 신임 교장 부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의 11대 교장으로 김승익 교장(51세)이 2013.8.12.(월)에 부임하였다.

신임 교장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중등과학교육 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고교 과학교사(12년)와 교감(5년)을 역임하였고, 교육부에서 8년 반 동안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 생활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등 주요 국가교육정책을 입안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한국교육계의 최대이슈였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의 인성교육지원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김승익 교장은 JIKS의 향후 경영방침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전임 선종복교장과 교직원들이 추진해 온 훌륭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만일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있거나 법과 규정,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직원과 학생·학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변화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점진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JIKS가 세계화·다문화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서 글로벌 인재,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전문가를 육성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과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로서의 인도네시아어 교육 강화, 인근 동남아시아지역 한국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융합과 창조의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등 한국학교가 지닌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JIKS는 학교재단이나 교직원의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특히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교민 모두의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JIKS의 발전을 위해 교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금세 가까워졌다. 보홀섬에서는 호핑투어, 로복강 크루즈, 돌고래 와칭, 스노클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마지막 여정이었던 마닐라 근교의 따가이따이 화산 투어 또한 인상적이었다.

보홀섬에서의 2박을 제외한 4박 동안 홈스테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이 많이 든 학생들은 마지막 날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보였

다. 벌써부터 다시 만날 겨울방학을 기약하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KISP학생들과 교류를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실용적인 영어 교육 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어와 타갈로그어(필리핀 언어)를 서로 가르쳐 주며 양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포토뉴스



㈜ 삼탄은 지난 8월 2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재단에 장학금으로 미화 1만불을 기증하였다.

재 인도네시아 삼탄 대표 김성국 사장은 최근 학교에서 2학기를 맞이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 장학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소재 늘푸른교회(담임목사 김신섭)가 8월 22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 1억 루피아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늘푸른교회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교회는 지난 2012년에도 JIKS에 1만 달러를 기탁해 여러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었다.



8월 1일 자카르타 시내 중심 탐린과 수디르만 거리에서 열린 '2013 인도네시아 세계 경찰악대 콘서트'에 참가한 서울경찰악대가 풍물놀이를 하면서 행진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J I S

새단장한 JIS 캠퍼스

자카르타국제학교 (JIS)는 8월 15일 개학을 하였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JIS는 캠퍼스를 새로이 단장하였고 새로운 학생들도 맞이 하였다.

새학기가 되어 바뀐 것은 작년에 폐지했던 종을 다시 설치했다는 것이다. 재작년에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수업이 있는 날 교실을 찾아가야 한다고 판단하여 종을 없앴는데, 2년만에 다시 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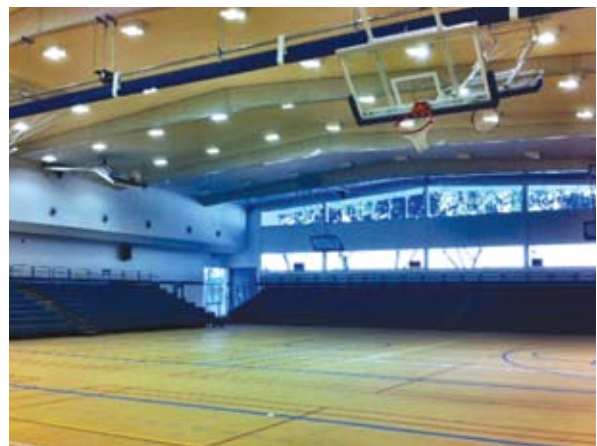
학교의 일정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조회 시간이 5분 앞당겨져 7시 30분이 되었고, 그만큼 점심 시간이 길어져 50분이 되었다. 매주 금요일 참여하던 mentorship 시간은 advisory 시간으로 대체되었다. Mentorship은 전 학년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멘토들이 가르치지 않는 학년의 학생은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 없었다. 반면에 advisory 그룹은 같은 학년끼리 모아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학교의 외관도 크게 바뀌었다. 무엇보다 1년째 공사하고 있는 체육관이 거의 완공되어가고, 고등학교

교의 트랙도 새로 단장했다. 체육관의 시설은 보완했고 실내 에어컨도 설치되며 트랙은 JIS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축구장의 인조잔디도 새로 교체했다. 이 외에도 모든 교실의 문은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해 산뜻해졌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학생이 JIS고등학교에 전학해 왔다. 입학생과 새로 올라온 9학년 학생수가 총 330명이고, 9학년의 한국학생은 33명이다.

JIS의 한국학생들이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기 기대한다.





제4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수상자 및 수상작 발표

구분	일반부		학생부	
	이름	제목	이름	제목
대상 재인니한국대사상			김다윗 JIKS 10학년	자카르타의 젓줄 찰리웅 강
최우수상 재인니한인회장상	김현미	잃어버렸던 나의 스크랩북	이정은 JIKS 11학년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공존을 이루다
우수상 한*인*인문화연구원이사장상	강명주	발리에서 예술가의 꿈을 펼치다	박연진 JIS 5월 졸업	사진 속의 아이들, 그 따사로움 (36.5oC,따스한 나의 고향)
우수상 한*인*인문화연구원장상	김현정	나의 인도네시아 적응기 (리사에게 박수를)	조승희 GMIS 12학년	황무지(시)
특별상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한경순	자바의 동지(시)	김혜경 JIS 11학년	나의 어린 스승들
특별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이태복	사산도의 전설(시)	최성미 JIKS 11학년	제2의 고향 인도네시아, 마치 두리안 처럼
장려상 한*인*인문화연구원상	이정희	찐따 인도네시아	기원혁 JIKS 11학년	나는 네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시)
	조명희	지금 나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이해와 관용	김현중 JIKS 1월 졸업	나의 두 번째 고향, 인도네시아
	김수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서예주 JIKS 9학년	이곳은 인도네시아야
	조영성	세 번째 인생		
	김영자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제 4 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

인니의 서정과 모국어에 대한 향수로 빛은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3년 9월 26일(목) 4:00~8:30
 * 4:00-5:30 바딕 실습(Latihan Membatik)
 * 5:30-7:30 시상식 및 인니전통문화행사
 (Angklung/Paduan suara The Singers)
 * 7:30-8:30 저녁식사(Makanan Indonesia)

신청: 메일 및 SMS
 lovekoin@hotmail.com
 apakabarindonesia@hotmail.com
 085710810495
 문의: (021)7883 9597

<장소> PENDOPO KEMANG 문화공간
 Jl. Kemang Selatan No. 111, Jak. Sel. Tel. (021)7183731

<후원> 주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상공회의소, 재인니예총
 일요신문, 한인뉴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신문, 자카르타경제일보

<특별후원> 재외동포재단, 재인니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 한인회부회장 김주철,
 PT DAWEE PRINTING INDONESIA

Dress code: Pakaian tradisional Indonesia



2013년 서울서예대전에서 인니 한인들을 빛내다!! -특선4명, 입선17명

유 난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8월 21일 오후 한국의 예술의 전당 인도네시아 교포 몇 사람의 이름이 호명 되었다. 2013년 제18회 서울서예대전 시상식에서다. 한글서예부문 특선을 한 김효경씨와 한문 전서부문 입선자 대표로 수상에 나선 신동필씨가 시간을 내어 시상식에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다. <자필묵연>으로 더 널리 알려진 사단법인 한국서협 인니 지회 회원들은 이번 2013년 서울서예대전에서도 특선 4점 입선 17점의 실적을 거뒀다. 30점의 출품작 중 9점이 탈락되어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공모전의 특성상 낙선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선의 영예는 앞의 김효경씨를 비롯해, 우빈 양승식, 유선 이정화, 현동 진만휘(IMAN)씨 등이다. 진만휘(陳萬輝, IMAN)씨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치과의사인데 꾸준히 자필묵연에서 공부하고 활동을 하며 그간 몇 차례 공모전에 출품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 공모전은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서울특별시 지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서울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2012년 8월 22일(목) ~8월 28(수) 전시되며 시상식은 2012년 8월 24일(토) 오후3시에 열렸다.

입선자는 송계 강주석, 자은 김영덕, 운초 김영주, 무불 김유만, 이담 김행일, 취현 박재환, 지운 박혜경, 보덕 신동필, 세정 심순희, 우빈 양승식, 일무 유용석, 문정 이우규, 목정 이채성, 유선 이정화, 우현 임채실, 목정 장 임, 도념 제경중, 무여 천상운, 이소 하연경(가나다 순)씨 등으로 한글서예부문, 4명, 한문서예부문 17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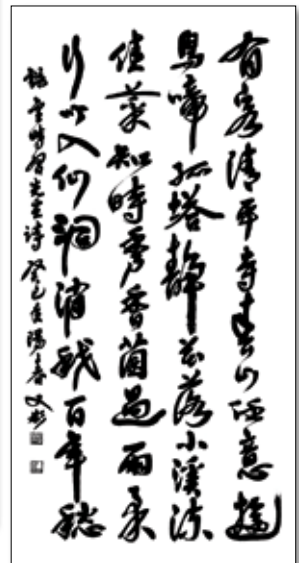
인니지회의 한국내 공모전 입상 성과는 지난 2006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

히 올해는 취은 김효경씨가 특선으로 3점을 얻음으로서 초대작가 필요 점수인 10점을 넘겨 인니네시아에서 시작한 공부로 초대작가가 됨으로서 교포사회의 문화적 우수성을 잘 드러내 주었다.

(한국서협 인니지회 문의 : 0811-830-477(부지회장), 0811-111-363, 0815-7464-6902(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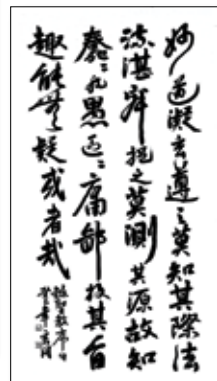
취은 김효경



우빈 양승식



유선 이정화



현동 진만휘

헤리티지 토요 스쿨 프로그램 "열대과일" 프로젝트

한국국제학교(JIKS) 토요 문화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3회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헤리티지)가 맡아 여러가지 주제로 강연을 열고 있다. 몇 년 전에는 해마다 6회정도 각 학년을 위해 스쿨 프로그램을 개최하다가 올해에는 하반기에 토요 문화교실을 맡아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올해 헤리티지의 스쿨 프로그램 첫번째 주제로 "열대 과일 효능 알기"가 지난 7월 6일(토) 오전 9시부터 개최되었다. 열대 과일 파워포인트 발표와 시르삭 및 구아바 등 열대과일초 만들기, 수꾼과 싱콩 간식 만들기가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열대 과일 발표는 한송이님의 사회 및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총 20여개 인도네시아에서 경작되는 열대 과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효능과 먹는 방법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땅에 살면서 접할수 있는 여러가지 풍부한 과일의 종류와 효능 및 쓰임새등을 알아보고 왜 체질에 맞는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등을 말해 주었다. 건강에 좋은 과일은 무엇인지,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계절에 맞는 과일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구입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싼 외국의 과일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1) 열대 과일의 효능

과 일	효 능	과 일	효 능
두리안	체질 개선/ 냉방병 예방	낭까	
망기스	피로 회복	파파야	소화 촉진/효소함유
망고	항암 역할	시르삭	항암 역할
클렝깁	철분 보충	구아바	땡기병 치료 및 예방
마르키스	피부 미용/ 시력 보강	람부탄	피로 회복

2) 마시는 시르삭초 만들기

여러 열대과일 중 "시르삭(효능-- 함암)"을 선택하여 현미식초:과일:흑설탕을 1:1:1비율로 미리 소독된 유리병(반드시 유리병을 사용 해야 한다)에 넣어 밀봉한 후 실온에서 하루, 냉장고에 2주 보관 후 내용물(과일)은 샐러드 소스 만들 때 같이 갈아 사용하거나 다양하게 이용하여 먹고, 과일식초수는 생수(4배의 생수로 희석하거나 기호에 맞게 배합)나 얼음과 함께 수시로 먹으면 입맛도 깔끔하게 해주면서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3) 싱콩(Singkong)과 수꾼(Sukun)을 이용한 간식 만들기

싱콩은 열대 식물과 뿌리 식물로 녹말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 싱콩을 이용한 아이들 간식으로, 싱콩을 믹서기에 물을 넣고 갈아 소금을 조금 첨가하고 전을 만들었다. 싱콩전을 쫄깃 쫄깃한 느낌이 아주 일품이다. 수꾼은 열대 식물 야채로서 항암효과가 있다. 껍질을 벗기고 내용물을 적당한 크기로 썰은후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다. 아주 담백하고 특별히 진하지 않은 맛이다. 수꾼 튀김은 아주 담백했다.

열대과일의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고,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과일식초 만들기 수업에 조금은 긴장되었던 아이들이 싱콩과 수꾼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그 쫄깃한 맛에 긴장은 사라지고 배움의 만족감과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활기차게 되었다.

헤리티지에서 주최하는 토요 스쿨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문화와 전통을 아이들에게 쉽게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고 흥미 넘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날 행사를 위한 봉사자는 김희정, 김주현, 이수진, 한송이 님으로 헤리티지 스쿨 프로그램은 매회 서로 다른 주제로 강연이나 체험 학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천연화장수 만들기, 아로마 세수 비누 만들기, 바딕만들기 등이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제19차 헤리티지 열린강좌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몸에 안좋은 화장품을 써서 피부에 트러블이 나서 고생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연으로 살려야하는 피부에 천연 화장품을 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천연 화장수와 천연 에센스, 천연 클렌징 오일과 아이 밤 (Eye Balm)을 직접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천연 화장품 제조 전체 과정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모든 행사 변경 가능)

일 시 : 2013년 9월7일 9시반

장 소 : 뽀독인다 (신청자에게만 공지)

강 사 : 윤정혜

선착순 15명 가량

참가비 : 15만 루피아 (재료/ 간식/ 화장수 용기 비용)

일정 : 9시 30분 만남의 시간

9시 45분 행사 시작

<준비물 및 재료 설명>

10시 천연 스킨 만들기

10시 20분 에센스 만들기

10시 45분 클렌징 오일/ 아이 밤 만들기

11시 30분 마침

회원가입 안내 - 연회비 개인 - 30만 루피아 가족 - 60만루피아

헤리티지 도서관 --스나얀 플라자 내 소고 옆 센트랄 스나얀 1번 건물 17층

연락처 (021) 572-5870 (NIDA -인니어, 영어)

주최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섹션 공동회장 김주현 이수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2015년 부터 발급



2015년 부터 영주권·장기체류 자에게도 ... 재외국민' 표시

한국서 30일 이상 체류 영주권자에게 발급, 주민등록 번호 말소 안시켜

오는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계획을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5년부터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내 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임대차 계약에 불편함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어 국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국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2015년 이전에 국외이주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외이주할 때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차례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올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출처 / 세계한인민주회의
www.okminjoo.com





재 인도네시아 찌카랑 한인회

(Korea-Indonesia Association in Cikarang)

JL.M,H Thamrin Ruko Plaza Menteng Blok B-15
Lippo Cikarang Bekasi-Jawa Barat 17550 ,Indonesia
TEL/FAX : 021-8990-9917.

인도네시아 語 강좌 실시

찌카랑 한인회 에서 하기와 같은 일정으로 4기 인도네시아 어

초급, 중급반을 개설 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수강 바랍니다.

1. 4기 인도네시아 어 초급,중급과정

일정 - 2013년 9월 2일 ~ 11월 21일(3개월과정, 주 2회 실시)

요 일	월	화	수	목	비 고
과 목	중급	초급	중급	초급	
시 간	10:00~11:00	10:00~11:00	10:00~11:00	10:00~11:00	
강 사	IBU ANA	IBU ANA	IBU ANA	IBU ANA	

2. 강의장소 : 한인회관 - 정원 25명(선착순 마감)

3. 수 강 료 : RP 450,000 , 3개월 일시납

4. 교 재 : 별도구매

5. 수강신청 : 8월 30일까지 한인회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연락처: 021) 8990 - 9917 , 0858- 9022-7052 Mrs. AN

찌 카 랑 한 인 회



국악사랑 Gugak Sarang
Kore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in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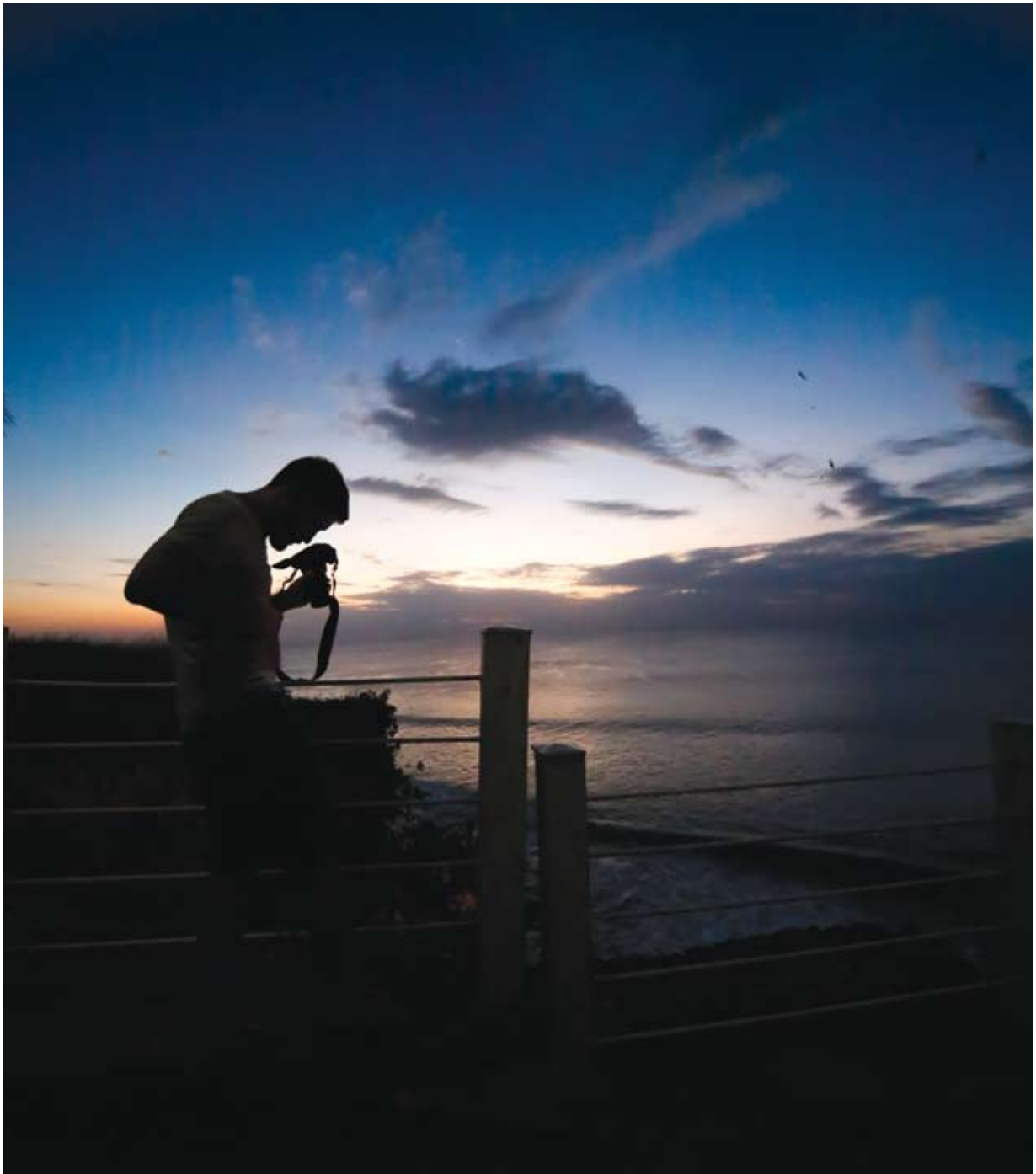


전 주대사습놀이 농악부문장원을 시작으로 2011년 전국안성 바우덕이풍물경연대회 대상이라는 화려한 수상경력의 박정구사물놀이선생의 지도하에 국립국악원 해외국악문화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매일 9시간의 심화수업을 자카르타국제학교 다목적실에서 상모기초에서 부포, 설장구, 소고등의 개인기연습과 판굿 사물놀이 수업이 알차게 진행되었다.



15명가량의 국악사랑 단원과 학생들이 모여 신나는 우리가락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국악사랑 단체 장방식



<자화상>

Bali Jimbaran Ayana Resort

나의 사진 찍는 모습을 한번도 상상 해본 적이 없다
그저 다른 이의 사진이나 풍경을 찍으며 돌아 다니는 사람이었다
우연히 사진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게 한다

사진과 글 **엄종한** 한인뉴스편집위원

민족대명절 추석의 의미



1. 추석의 의미와 풍속

추석은 음력으로 8월15일로 설, 한식, 단오와 함께 우리민족의 4대 명절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추석이란 명칭은 글자 그대로 달 밝은 가을밤이란 뜻으로 연중 8월 보름달의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성호 선생도 ‘정초추석’이라 하여 정월달에는 새벽달을, 가을에는 추석의 밤달을 으뜸으로 여겼다. 추석은 다른 말로 가베일, 중추절, 가위, 한가위라고도 한다.

‘한가위’란 아름다운 광대라는 한자 뜻으로 미루어 즐거운 놀이라는 말이고, ‘한’은 으뜸, 큰 뜻으로 한가위란 가장 즐겁고 큰 놀이를 일컬음이라 하겠다.

이 날 신도주와 오려(올벼)송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물을 만들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며 농공감사제를 지냈다. 또한 계



절적으로도 알맞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만큼만” 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추석은 수확의 계절이며 달의 명절로, 보름달을 상징으로 삼는 큰 명절이다. 추석날 저녁에는 마을 동산에 올라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달맞이를 한다. 추석날은 날씨가 맑아야 좋고,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고 하여 불길한 징조로 삼았다.

또한 구름이 끼어 달을 못 보면 보리와 메밀이 흉년이 들고, 토끼는 새끼를 배지 못해 번식하지 못하며, 개구리는 알을 까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추석이 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은 보름을 단위로 초승달에서 반달로 이어 만월로 옮겨가는 과정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생명이 성장하고 퇴조하여 죽음에 다다른 일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추석날 아침 일어나 추석빔을 차려 입고,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햅쌀 술로 조상께 차례 지내고 성묘한다. 밤이 되어 솟아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친척들, 이웃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고 놀이를 즐긴다.

추석의 풍속은 달맞이, 추석차례 지내기, 올벼신미, 강강술래(강강수월래, 强羌水越來), 근친과 반보기, 소놀이(소먹이 놀이) 등이 있다.

이처럼 추석 때 즐겼던 우리의 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많이 사라져 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추석은 여전히 풍성한 수확과 감사가 깃들여 있는 우리의 최대 명절이다.

2. 추석의 음식

추석의 음식으로 오려송편, 토란탕, 닭찜, 갈비찜, 화양적, 누름적, 배화채와 배숙, 빈대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송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중 가장 먼저 나오는 햅쌀로 빚은 송편을 오려송편이라 하여 조상의 차례상과 묘소에 올린다. 송편



은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녹두, 거피팥, 참깨, 햇콩 등을 소로 하여 반달모양으로 빚어 찐 떡이다.

송편이란 이름은 솔잎을 커마다 깔고 찌기 때문에 붙여졌으며, 떡에서 솔잎 향기가 나 입맛을 돋운다. 또 소나무의 정기를 먹어 마음을 다스린다는 일설도 있다. 쌀가루를 익반죽할 때 쭉이나 모시잎, 송기(소나무 껍질을 손질한 것)를 찢어 넣어 쭉 송편이나 모시잎 송편, 송기 송편으로 3색 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한편 송편에 얽힌 이야기도 많다. 송편을 잘 빚으면 좋은 신랑을 만나고, 임신부는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여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었다. 설익은 송편을 깨물면 딸을 낳고, 잘 익은 송편을 깨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도 있고, 또 송편 속에 솔잎을 가로로 넣고 찐 다음 한쪽을 깨물어서 솔잎의 귀쪽이면 딸이고, 뽕쪽한 끝 쪽이 오면 아들을 낳는다고 점치기도 하였다. 그래서 임신부들이 일부러 찐 송편을 씹어보는 풍속도 있었다고 한다.

송편은 송병(松餅)으로도 불렸으며, 절편 등과 같이 멥쌀로 빚는 병류이지만 만드는 방법이 특이하다. 멥쌀가루를 익반죽하고 소를 넣어 모양을 만든 떡류다. 모든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잘 만드는 떡으로, 추석 때 햇곡식으로 빚는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다.

송편은 17세기부터 기록에 보인다. ‘요록’의 송편은 “백미가루로 떡을 만들어 솔잎과 쪼갠 찌

서 물에 씻어낸다”고 하였으며, ‘성호사설’에서는 “멥쌀, 콩으로 만든다”고 기록되었고, ‘규합총서’에서는 “팥, 꿀, 계피, 후추, 건강말”을, ‘동국세시기’에서는 “콩, 검정콩, 팥, 꿀, 대추, 미나리”를, ‘부인필지’에서는 “팥, 잣, 호도, 생강, 계피”를 ‘시의전서’에서는 ‘거피 팥고물, 거피 녹두고물, 대추, 꿀, 팥, 계피, 밤 등’을 송편의 소로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2월 초하루 중화절(노비일)에 정월 보름날 세워 두었던 화간에서 벼이삭을 내려다가 크게는 손바닥 만하게, 작게는 달걀만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노비들에게 나이 수대로 주었는데, 농사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사기를 돋우어 주기 위해 송편을 만들어 이날 만큼은 쉬면서 먹게 하였다”고 한다.

또 고려 말의 충신 이색의 「목은집」에 송편에 대한 시(詩)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뉘가 알까 이 떡의 향기를, 황금빛이 곁에 넘치네, 팔소를 속에 넣어 배가 부르며 먹기 쉬워 배고픔에 좋은데 삭히기 어려워 또한 배탈 나기도 쉽고너”라는 구절이 있다.

송편은 반죽에 넣는 재료와 그 색에 따라 흰송편, 쭉송편, 송기송편으로 구분하고, 소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부른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감자 녹말이나 고구마 녹말, 모시잎을 사용하여 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소는 거피하여 쓰는데, 팔, 검은 콩, 풋콩, 녹두, 밤, 대추, 깨고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송편의 모양과 크기도 지방에 따라 다양한데, 북쪽은 대체로 크게 만들며, 서울 쪽은 작게 빚는다.

추석을 앞두고 여러 날 전에 술잎을 뜬어 깨끗이 손질해 두었다가 갈피갈피 놓아 찌면, 송편에 술잎 자욱이 나고, 은은한 술 내음이 쫄깃쫄깃한 멥쌀 떡 맛과 각색으로 넣은 소의 맛이 한데 어울려, 명실 공히 한국 떡의 맛을 느끼게 한다.

3.추석 놀이문화

추석의 놀이는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었으며, 줄다리기, 씨름,강강수월래 등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고대에 만월을 갈망하고 숭상하던 시대에 이미 일년중에서 가장 달이 밝은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후에 와서 의식화(儀式化)되어 명절로 제정(制定)을 보게 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다.”

신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 9년(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른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 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가지고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것을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 고 하였고, 또 “이때 진 편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추석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으로는 벌초(伐草), 성묘(省墓), 차례(茶禮), 소놀이, 거북놀이, 강강수월래, 원놀이, 가마싸움, 씨름, 반보기, 울게 심니, 밭고랑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편집부)



두리안 (Durian)

과일의 제왕



일반명: Duri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외 대부분 국가), Thurian(태국)

과 명: 아욱과(Family: Malvaceae)

학 명: *Durio zibethinus* Murr.

기원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르나이,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이 용: 생과일, 가공식품, 식품첨가제, 해열제, 염색제

모양새: 겉은 굵은 가시가 둘러싸여 있다. 속은 노란색 육질. 씨는 열은 황토색으로 단단하지 않다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과일의 제왕

자극적이고 불쾌한? 향기 때문에 처음엔 접하기 힘든 과일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기에 두리안이 과일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심지어 호텔이나 비행기에 반입이 금지되는 유일한 과일인데도 말이죠 야생에선 단단한 껍질과 무시무시한 가시 때문에 웬만한 동물들은 먹기조차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리안의 엄청난 크기와(축구공 만한), 열매 표면의 무시무시한 가시, 그리고 독특한 향 때문에 과일의 제왕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맛과 향은 어떻게?

향을 빼놓고 맛만 이야기 한다면 이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감내하고 먹어야하는 불편한 냄새가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여러 유명인들이 두리안의 맛과 향을 설명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865년 영국의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러셀 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아몬드로 향을 낸 느끼한 커스터드 같지만 크림치즈와 양파 소스 그리고 셰리 와인 및 기타 서로 안 어울리는 음식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향이 간혹 난다. 시거나 달거나 수분이 넘치지 않고 과육에는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미라고 할 만하다.” 반면 영국의 소설가 앤서니 버제스는 두리안을 먹는 것을 두고 “바닐라 커스터드를 변소에서 먹는 것 같다” 고 말한 것은 유명합니다. 한 번 두리안을 맛보면 그 맛에 매료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굉장히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데 것은 불편한 향에 대한 개별적인 취향과 감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로틱 과일

두리안은 ‘에로틱 과일’ 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속담에 ‘두리안이 떨어지면 사롱이 올라간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간에선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이 두리안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불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두리안은 양기가 강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리안을 먹고 나면 땀이 많이 난다고하여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은 피해야 할 음식으로 보며, 특히 음주 후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두리안을 금기해야 할 과일 중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사용

생과일 외에 과육을 건조하거나 가공하여 Tempoyak(발효두리안), Ketan durian(찰쌀과두리안 소스 반죽), Dodol(두리안 케익), 두리안 칩, 두리안 아이스크림 등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의약적으로는 두리안 나무의 뿌리와 잎을 달여 해열제로 사용합니다. 두리안 열매 껍질은 피부질환 외용제로 사용하거나 열매 껍질 태운 재를 염색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르는 법

나무에서 떨어진 지 1시간내외 것 혹은 바로 수확한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흔들어 보아 내용물이 약간 덜렁 거리는 것, 냄새가 강한 것으로 고르면 됩니다.





신성철 (테일리인도네시아 대표)

몇 달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에 대해 장밋빛 보도 일색이었지만, 지금은 경제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4년간 흑자를 기록했던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가 2012년 적자로 돌아섰다면 이는 인도네시아가 경제 호황기 때 관리에 실패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매도세가 루피아화 폭락과 물가상승률에 불을 붙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올해 2분기 성장률은 5.8%로 낮아졌고, 올 성장률은 정부 목표인 6.3%를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키워드를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를 짚어본다.

경제불안

최근 언론에서 인도네시아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표현하는데, 아직은 ‘경제불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원대국 인도네시아 수출액의 60%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팜유, 고무 등 천연자원이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

도네시아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달러화 공급 축소로 달러화 강세를 보이면서 루피아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자각하고 뒤늦게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은 무역수지 적자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내구성 소비재를 수입해 쓰는 탓에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무역적자액은 56억 달러에 이른다.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분기 4.4%(98억달러)로 전분기(58억달러) 대비 70% 가량 늘어났다. 인도네시아 증시도 하락을 거듭해 자카르타종합지수(JCI)는 8월 28일 기준 3994.01p로, 정점이던 5월 20일(5,214p)보다 석달새 24% 가량 곤두박질쳤다. 달러 대비 루피아화는 최근 5개월 동안 15%나 떨어져 11,000루피아선을 넘어섰다.



인플레이션

지난 8월 물가상승률도 8.79%까지 올라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 요인은 정부가 6월 단행한 보조금 유가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생필품 가격 상승이다. 엮힌 데 덧붙여 격으로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차입 규모가 늘면서 루피아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은행(BI)은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을 9.0~9.8%로 예상했다.

외환보유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기준 927억 달러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IMF 권고치 상한선보다 높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양적완화 축소 우려만으로 급격한 외화유출을 겪고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4대 정책 패키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과 주가 폭락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4대 경제정책 패키지를 지난 달 23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4대 경제정책 패키지는 무역적자 해소와 대량해고 방지, 노동집약·수출 산업 투자 촉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생산품의 30% 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확대 △바이오디젤 사용 촉진을 통한 경유 수입 축소 △광물 수출 규제 완화 △노동집약적 산업에 세금우대 확대 △보세구역 규제 완화 △대량실업 사태 방지 위해 지역최저임금을 적정생계비와 경제성장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 등 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상

지난 8월 물가상승률이 연간 대비 8.79% 상승해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이전 기준금리는 6.5%이다. 이는 균형이 맞지 않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7.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인도네시아은행(BI)은 지난 8월 2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억제와 루피아 약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5%p 올려 7%로 상향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0.5%p 추가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총선. 도플리즘

인도네시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진 빈민층 타격이 직접적이라 복지 확대 요청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원하는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 정부는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인플레 때문에 되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



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급등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면, 실업자들이 오토바이·자동차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확대에 의한 국가부실과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내년 최저임금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함에 따라, 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의 2014년 지역최저임금이 20%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번 대통령령에 따르면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은 연간 인플레이션에 5%를 더해 지역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이외 산업 분야는 인플레이션에 최대 10%를 더해 지역최저임금을 정하게 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노조연합(KSPI)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 요구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규정한 인상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경제위기 단기적 현상

디피 조한샤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대변인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위기는 단기적인 현상”이라며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조한샤 대변인은 “올 3분기부터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현 상황에 대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위기라고 할 수 있고, 1997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장기적인 침체로 흐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기업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기업인들에 따르면 대부분 수출을 하는 봉제와 신발업체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당장 달러·루피아 환율이 15% 오름에 따라 올해 급등한 최저임금의 손실을 단기적으로 상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발표한 대통령령을 기초로 친기업적인 세무 장관규정이 나와서, 수출기업의 세제혜택과 보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된다면 일부 한인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에너지 미래, 세계에서 답을 찾자

해마다 반복되던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문제는 이제 한계에 온 듯하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국민들은 예비전력의 수치가 따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력 정보가 관심과 주의 단계를 오가는 심각한 ‘블랙아웃’ 위기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상기후와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갈수록 전력의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전력 공급능력과 에너지 정책은 수요의 증가 속도를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 국가 경제가 유지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에너지다. 전력난뿐만 아니라 각종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 전문가들과 소관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에너지 문제는 그 특성상 내외부적인 난관이 산재해 있기 마련이다. 이해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고 그 합의가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례로, 에너지 자립도가 3%인 우리는 일찍이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에 투자하며 원전 수출국가로 성장했지만,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원전 관련 사고는 계층 간 에너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원전 위험에 대한 이해와 폐기물 처리 등의 난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 비중이 높으나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는 가격상승과 환경훼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에너지난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는 에너지 이슈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보와 더불어 외교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현재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이뤄지고 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헤게모니가 중동에서 미국으로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크

며, 유럽의 경기침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확대로 시장의 무게중심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지 않고서는 국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현재 직면한 전력 문제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오는 10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에너지 회의인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가 대구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약 50여개국의 에너지 장관들과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개발은행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에서 다양한 분야 영향력 있는 전문가 5000여명이 대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에너지 및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인사들과 한자리에서 교류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온 것이다.

특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원을 다뤄 특정 분야에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이 논의에 반영된다.

총회를 통해 세계에너지 시장의 흐름과 향후 나아갈 방향은 물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국가의 경험과 해법에 대한 해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도, 몽골, 베트남 등의 개도국에 한국 전력 산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위치에 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국토 면적도 작고 천연 자원 하나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줄게 많은 역량 있는 나라다.

한국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허브로서 역할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종호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사무총장
그린데일리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지성이면 감천 Tulusan hati.

마흔이 넘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진 성수와 일영 부부는 독립하지 못하고 재석이네 집에서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 종가집 며느리로 시집와 반 평생 집안 대소사만 챙기며 살아온 성수 누나는 결혼하고도 일하려는 일영이 맘에 안들고, 성수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라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영 이들의 싸움에 급기야 심애기 할머니까지 가세한다. 일영이 때문에 성수가 기를 못 편다는 말에 화가 난 심애기는

Kau mau mengatakan kalau dia mengganggu karena II Young?

그럼 이서방(성수가)이 우리 일영이 때문에 놓고 있던 말이유?

Itu karena dia tak kompeten.

지 능력이 모자라는 거지 !

Kompeten과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문장에 따라 다양한 단어로 ~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는 권위/ ~을 죄지 우지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뜻합니다.

Contoh)

Kompeten (cakap, berkuasa, berwewenang / 숙련된, (~을 감당할) 능력 있는, 권위있는)

* Dia tak berani mencalonkan diri sebagai ketua partai karena merasa tak kompeten mengenai politik.

정치권에서 권위가 없는(숙련되지 않은/ 잘 모르는) 그는 당의장이 될 자신이 없다.

* Kupikir dia kompeten di bidang jurnalisme setelah dia bekerja bertahun-tahun menjadi wartawan.

다년간 기자로 활동한 그가 저널리즘계에서 충분한 권위를(~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드라마에서 퍼블린 비행사

아시아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뉴스에서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가장 위험군에 속한 나라라는 방송이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증가 폭이 1996년 이래로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지난주 발표에서 나타나자 이번 주 들어 증시가 폭락했다.

아시아 신흥국 금융위기 보도하면 메인으로 나오는 자카르타 탐핀 지역 화면을 보니, 왠지 낯설지 않아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착잡하다. 이제 나에게 인도네시아가 제 2의 조국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아, 이대로 지속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흔들리면 안될 텐데... 더 힘들어 지겠구나...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뉴스 보도 내용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달러당 환율이 12000원선을 넘길 수도 있던데 내가 사는 인도네시아 우리가 사는 인도네시아에... 부디 아무일 없길 기도해 본다.

Kemampuan (bisa atau sanggup melakukan sesuatu/kesanggupan, kecakapan, kekuatan / 능력, 재능, 힘)

* Kemampuannya dalam menulis cerita akan terbukti setelah dia mengikuti kompetisi sastra ini.

문예전을 통해 그가 글쓰는 재주(능)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예전에 참가하고나서)

* Seorang atlet tidak hanya membutuhkan kemampuan fisik, tetapi juga mental yang kuat. 운동선수는 단순히 튼튼한 체력만(신체의 힘) 이 아닌 강한 정신력도 요구된다.

Berkuasa (Sesuatu) (Kemampuan atau kekyatan untuk berbuat sesuatu / Bersanggupan; Berkemampuan/ ~(을)실 행하거나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권한을 갖다)

* Selama berpuluh-puluh tahun, partai itu berkuasa di pemerintahan negara republik itu. 본 정당이 수년간 공화국 집권당(실세/ 능력, 권한을 갖춘 당) 이다.

Ahli (Orang yang mahir dan paham sekali dalam suatu ilmu atau kepandaian/ 학문이나 어떠한 분야에 전문적인)

* Kau butuh bantuan ahli hukum dalam menyelesaikan sengketa ini.

본 소송건 해결을 위해 (당신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Aku tak ahli dalam memasak, jadi serahkan tugas kali ini pada orang lain.

나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맡기다)

참고) Terserah : 어근은 Serah에서 온 단어입니다.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

단어의 뜻 및 뉘앙스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상대 방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정하는대로 따르겠어요” 라는 뜻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cakap (Mampu; sanggup melakukan sesuatu /pintar;pandai, mahir 능력이 있는, 다재다능한, 잘하는, 유능한)

* Dia tak hanya cakap berbicara, tapi juga mampu mendengarkan orang lain dengan baik.

그는 언변력만 뛰어난 것 아니라,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기도 한다.

Kuat (perkasa; banyak tenaganya; tenaga yang hebat / 힘이 세, 강한, 체력이 많은)

* Ayahku kuat membaca koran selama berjam-jam.

우리 아버지는 몇 시간 동안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체력이 된다)

* Dia tidak kuat lagi mengalami cobaan hingga berusaha mencari jalan pintas.

그는 더 이상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Mahir (sangat ahli; cakap atau pandai dan terampil/ 유능한, 전문적인)

* Masukkan anakmu ke klub seni itu agar dia mahir melukis.

당신의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기(유능하게) 위해서는 그 예술 클럽에 보내야 한다.

Pandai (Pintar; cerdas ; dapat /똑똑한, 현명한, (잘) 할 수 있는)

* Dia jadi pandai memasak setelah menikah selama 10 tahun.

결혼 10년 후 그녀는 요리를 잘 하게 되었다.

* Adiknya sudah pandai membaca 그의 동생은 (이미) 책을 잘 읽을 수 있다.

Profesional (Memerlukan kepandaian khusus untuk menjalankannya; 전문적인, 프루다운(업무))

* Orang yang profesional dalam bekerja tidak akan mencampur urusan pribadinya dengan pekerjaan.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업무에 사적인 일을 연관시키지 않는다.

* Rani memutuskan menjadi penyanyi profesional setelah memenangkan kontes menyanyi.

가요콩쿨에서 우승한 후 레니는 직업(전문)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Terampil (Mampu; cekatan / 능력, 소질을 민첩하고 숙련된, 숙달된)

* Lulusan SMK merupakan pemuda-pemudi terampil dan siap kerja.

직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은 업무에 숙달되어 있고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참고) Keterampilan : 기술/ 재능을 표현하는 명사가 됩니다

Keterampilan dasar mengajar: 가르치는 기본 기술 (모든 학습에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표현 종종사용하시죠. Keterampilan dasar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Pintar (Pandai;melakukan sesuatu dengan baik/ 똑똑한, 잘하는)

* Orang yang pintar belum tentu bijaksana. 똑똑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대상(재인니한국대사상)



자카르타의 젓줄 찢리웅 강



JIKS 10학년 김 다윗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찢리웅 강을 보러 가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자카르타의 젓줄이 라 표현하시며 언젠가 한번은 꼭 보아야 할 명소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녹음이 우거지고 수정같이 맑은 물에 물고기가 보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강을 기대하였다.

오후 3:30, 더위가 한풀 꺾일 즈음 기사 아저씨의 안내에 따라 Jatinegara 지역의 Bukit Duri 로 향하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가다가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들 앞에서 내렸다. 그 중 한 골목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좁은 골목들이 수없이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며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홍수 직후라 그런지 조금 음습하고 어디선가 꽤쾌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저기다” 한참을 가다가 아버지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자 누런 흙탕물이 흐르는 강이 보였다. 군데군데 대나무로 만들어진 뗏목이 떠 있었고 뗏목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낭만적으로 보였다. 낚시를 하고 있거나 그물질을 하는 것이리라. 서둘러 다가가 주변을 살펴보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 내 눈이 의심스러웠다. 한 아주머니가 그릇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뗏목 위로 가져오더니 더러운 강물에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다. 그 옆에는 옷을 빠는 사람도 있었고 한 작은 아이

가 머리를 감고 있었다. 주변에는 검은 비닐봉지, 상자, 썩은 채소 등 각종 쓰레기들이 끊임없이 떠 내려 오고 있는 중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한 젊은 아가씨가 누런 흙탕물에 이빨을 닦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리 되지 않아 한참을 그렇게 살펴보았다. 그러다 뗏목 한편에 특이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허리 높이 정도로 네모난 칸막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 담배를 피우거나 무엇에 열중하면서 한참을 앉았다가 나오곤 하였다. 지붕이 없어서 앉아도 어깨 위로는 다 보였다. 바로 용변을 보고 나오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Oh my God!” 하 마터면 이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뻔 하였다. 쓰레기+똥물에 목욕도 하고 이빨도 닦고 밥그릇도 씻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용변을 보고 난 후에는 밑에 흐르는 강물을 비데로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수세식 화장실이었던 것이다. 나는 궁금증이 생겨 대나무 뗏목에 직접 올라가 보았다. 화장실 밑으로 대나무 일부분을 잘라내어 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 번 앉아 볼까 하다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 그만 두었다.

강 주변의 좁은 길 양쪽에는 나무각목과 벽돌로 이루어진 네모난 좁은 집들이 끝없이 이어져 붙어 있는 것이 꼭 닭장 같았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이 이들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었던 것이



다. 가게도 있고, 채소도 팔고, *Tukang Bakso*도 있고, 토끼를 파는 사람도 있었다. 좁고 비위생적이지만 여느 자카르타의 모습 그대로였다. 주부 본능에 어머니는 야채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마침 양파가 다 떨어지셨다며 1킬로를 이만 사천루뻬아에 사고, 그 옆 가게에서 *Pulsa* 10만 루뻬아를 10만 천원에 채우셨다. 어머니는 우리 동네보다 싼 가격이라고 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이 *Pulsa* 집에서 나는 몇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집 벽 군데군데 허리 높이 또는 키 높이 정도에 가로 방향으로 희미하게 나 있는 무늬를 가리키며 홍수가 날 때 물이 차오른 흔적이라고 하였다. 구정물이 사람 키 높이까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허술한 집들이 모두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땅이 좁아서 일까? 이런 빈민촌에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닐 텐데. 그러나 이 의문은 금방 풀렸다. 홍수(*banjir*)가 날 때 짐들을 전부 2층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식수를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마신다고 했다. 지하수도 강물이 스며나오는 것일 텐데, 결국 식수도 찢리웅 강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얼마를 걷다가 1인당 1000 루뻬아를 지불하고 게뻬팸부(*Getek Bambu*)라고 부르는 나무 뗏목을 타고 건너편으로 가 보았다. 게뻬팸부는 강 이쪽 주민들과 저쪽 주민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강 중간정도 갈 즈음 건너편에서 한 아저씨가 무엇인가 가득 들어 있는 상자를 들고 오더니 그대로 강 가운데로 던지는 것이 보였다. 쓰레기였다. 그렇게 쓰레기 가득한 상자 하나가 찢리웅 강에서 떠내려가고 있었다. 강 한 가운데에서 주변을 살펴보니 강 양쪽이 마치 거대한 쓰레기 벽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아무렇게나 강둑에 던져버리면 그 쓰레기들이

데굴데굴 강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도대체가 많은 쓰레기들이 어디서 끊임없이 떠내려 오는 것일까? 이 궁금증이 풀리는 장면이었다.

강 주변의 좁은 골목에는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나무그늘 밑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옹기종기 모여 채소를 다듬으며 웃고 떠드는 아주머니들, 무엇보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았다. 자카르타의 가장 하층민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지만 인구 밀도는 가장 높은 곳일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들은 참 친절하였다. 입구에서 한 할아버지에게 길을 묻자 장황한 말로 한참을 가르쳐 주셨다. 너무 길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사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옆에 있던 아저씨는 자기 집이 강 주변인데 오토바이가 있으니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느라 애 먹었다. 이들의 친절이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무엇보다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이 참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할로!’를 외치고는 짹짹거리며 달아났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되었다. 날마다 아침이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졸면서 학교에 가야 하고, 학교에서 온 종일 공부에 시달리고, 시험기간에는 극도의 긴장으로 밤잠을 설쳐야 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부모님께 또 시달려야 하고,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죽고 싶을 때도 많은데, 이 찢리웅 강 아이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같다.

인도네시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나는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면 항상 쓰레기 가득한 강과 거리들이 떠오른다. 찢리웅 강은 이런 인도네시아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 같다. 그런데 길 가던 도중 어머니께서 갑자기 예언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 찢리웅 강이 한국의 청계천이라는 것이었다. 30년 뒤에는 한국의 청계천이나 한강 같이 변할 것이라 하셨다.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내가 본 청계천은 너무도 깨끗하고 설만한 공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여름방학기간 청계천을 자주 갔었다. 동대문에 있는 한국 중앙 의료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청계천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일과가 끝나면 청계천에 들렀다가 귀가하곤 하였다.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물이 참 깨끗하였고 팔뚝만

한 잉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칠 때마다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곳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하룻동안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자주 들르게 되었다. 또 한강도 가봤었는데 뚝섬 시민공원의 야경이 너무 멋있었다. 하늘 위 한강 다리 주변으로 전시실이나 설만한 휴식터가 있었다. 수영장도 잘 꾸며져 있었다. 하늘 위 꼬불꼬불한 모양의 전시실에 경희대 천문 동아리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았다. 신기하게도 토성의 타원형 테두리까지도 보였다. 한강 다리는 다리가 아니라 잘 가꾸어진 종합문화복합플렉스였다. 여러 가지 종합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그런데 찢리웅 강을 한국의 강들과 비교하다니, 어머니께서 오버하시는 것은 아닐까?

문득 이 찢리웅 강의 상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다. 부모님을 졸라 다음날 아침 Bogor 지역의 Katulampa로 향하였다. 상류로 향할 수록 물은 깨끗하고 차가웠다. 마을 끝자락 즈음에 강을 막아 놓은 제법 큰 뚝이 있었다. 그 밑으로 두 개의 강으로 갈라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Tangerang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다른 하나가 자카르타로 향하는 찢리웅 강의 시작이었다. 뚝 위편으로는 산 사이의 계곡즈음에서 맑은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었다. 찢리웅 강물이 처음부터 더러운 것은 아니었다. 시작은 맑고 깨끗한 계곡 물이었다. 자카르타 중심부를 굽이쳐 흐르는 동안 인간들이 이기심으로 버린 쓰레기와 오물을 말없이 받아 내며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민들의 삶의 고단함을 달래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동안 정작 찢리웅 강은 누렇게 썩어가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끔은 홍수로 인간의 오만함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주변을 쓸어내 버리

곤 한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찢리웅 강이 아닐까?

30년 후의 이곳의 모습을 그려본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찢리웅 강이 청계천처럼, 혹은 한강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공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깨끗한 물에 쓰레기 대신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민공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카르타 모든 시민들이 와서 쉬고 힘을 얻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귀찮고 어려워도 쓰레기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용변이나 세탁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끼 먹기도 힘든 서민들에게 사치스러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찢리웅 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행히 찢리웅 강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과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문득 찢리웅 강이 자카르타의 젓줄이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들, 시궁창 같은 강물 속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다이빙하고 소리 지르며 놀던 아이들, 대소변은 물론 세수나 만디 심지어 채소 씻는 것조차 같은 공간에서 하는 이곳,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놀이터이고, 어른들에게는 생활공간인 이곳, 오늘도 이곳에서는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찢리웅 강은 강에서 사는 모든 이들의 모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다. 2일간에 걸친 이번 여정은 시원하기보다는 덥고 땀나고 여행, 재미있었다기보다는 피곤하고 짜증나는 여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내 기억 속에 오래 오래 남아있을 여행인 것 같다.



■ ■ CNN 선정한 한국 꼭 가봐야할 곳 50

11. 경주 보문정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벽이 없는 박물관으로 한국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역사 도시이다. 보문정은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느끼기엔 완벽한 곳이다. 봄의 벚꽃부터 여름의 푸른 나뭇잎, 빨갛게 변하는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눈꽃송이까지.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추천한다.

경북 경주시 보덕동 >>



12. 우도

제주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우도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또하나의 필수 코스.올레길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쿠터를 타고 해변가를 따라 가거나 낚시 또는 잠수함 경험도 할 수 있다. 아,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기도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13. 합천 해인사

전세계 최고로 오래된 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은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인사에 보관중이다. 해인사 자체도 하나의 역사 유적으로 역사에 관심있는 관광객이라면 꼭 방문해야하는 곳이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14.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에 위치한 1,915미터의 천왕봉은 한국에서 두번째로 가장 높은 산으로 등산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총 다섯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는데 수많은 동식물의 고향일뿐 아니라 일곱개의 국보와 26개의 보물들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많은 등산객들은 해돋이를 보기 위해 천왕봉에 오르기도 하고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오르기도 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이유건간에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한국의 산맥을 보기 위해서는 꼭 들러보아야 하는 곳임에는 틀림없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



15. 담양 죽녹원

슬로우 시티 담양에 위치한 죽녹원은 수많은 광고와 영화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총 여덟개의 오솔길이 있어 여덟가지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는 흔하지 않은 죽로차도 맛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16.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초가집에서부터 공공기관 그리고 아름다운 성곽들을 찾아볼 수 있는 민속마을.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실제로 아직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보는 것은 어떨까? 조선시대의 생활상 그대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





아름다운 풍경

행복 에세이

서미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비가 그쳤을 때 태양과 반대쪽에 강수(降水)가 있을 경우, 그 물방울에 비친 태양광선이 물방울 안에서 반사, 굴절되어 생긴다.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작은 편각의 방향으로 사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처럼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린 직후에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려주는 무지개는 그 색채의 황홀함이 유별나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며 감탄을 하게 된다.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어느 건널목에서 그것도 불과 1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는 어느 오후의 시내 한복판, 간선도로의 교통이 한창 붐빌 때였다. 푸른색 체크무늬로 된 임신복을 입은 여인이 8차선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건너갔으나, 그녀는 한 손을 허리에 대고 건너라 조금 뒤뚱거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보행 신

호등은 어느새 깜빡 거리기 시작했다. 몇 초 후에는 차량진행 신호등도 푸른 신호로 바뀔 참이다. 그러나 이쪽저쪽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서있는 차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꼼짝도 않는 것이었다. 엔진까지 꺼놓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보도 양쪽에는 주춤거리다 건너길 포기한 보행인들이 서있었다.

배가 부른 만삭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정지선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멈춰 서있는 대 여섯 대의 앞선 차량들이 내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차들 뒤에 있는 다른 차도 경음을 울리지 않았다.

참으로 신기하였다. 정적의 순간이 계속되며 하나의 정지된 화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차량 앞쪽의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또 하나의 생명에 경배를 보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싶었다.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뱃속의 아기가 놀라지 않게...’.

무지개의 일곱 색은 각각 개성과 특성이 있으니 우열을 논할 수가 없다. 무지개의 일곱 색이 각각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아름다우니 말이다. 빨강색이나, 보라색, 혹은 다른 색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곱 가지 색은 각각 자기 빛깔에 진실해야 한다. 빨강색이 주황색을 닮아버린다거나 탈색 변색하여 자기이기를 거부한다 해도 곤란하다. 여섯 색 모두가 빨강색이 너무 붉다고 배척해 버리고 함께 자리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도 일곱 가지 색의 무지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다. 차가 멈춰선 건널목에서 대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펼쳐 보여주었던 순간의 광경은 오랫동안 내안의 무지개로 남아있다. 그것은 마치 내게 혼시를 주는 깨달음을 주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 빛깔에 진실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색깔을 받아들이는 고리를 형성해야 하듯이 인간의 심성도 마찬가지로 아닌 듯싶다.

건널목에서 약속도 없이 보여준 인간 본연의 진리, 서로를 위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남미 아르헨티나는 임신부에게는 천국의 나라라고 한다. 그들은 배꼽띠셔츠 차림으로 허리통을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한다고 한다. 출서기에서도 사람들은 기꺼이 그녀들에게 앞을 양보해주고, 슈퍼마켓에서는 전용 계산대와 주차장이 따로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승하차와 좌석의 우선권 등이 주어진다고 한다. 임신부를 한사람이 아닌 두 사람으로 보는 시각, 새 생명에 대한 배려와 책임은 그 어머니 혼자서도 책임이긴 하지만 사회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한국사회의 인식도 그렇게 품격 있는 심리의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듯해서 마음 가득 기쁘고 흐뭇한 날이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서강대 고장영희교수의 산문집에서 보면 “사랑과 생명”이라는 주제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논어에 ‘애지 욱기생

(愛之 慾基生, 12권 10장)’이라는 글이 있어 해석하기를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한다. 로 풀이 하였다. 나는 지금껏 논어(論語)를 그렇게 깊이 있게 탐독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훌륭한 문구가 논어에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것도 영문학을 전공하신분의 책에서 논어의 내용을 깨닫는다는 게 다소 부끄러웠다.

‘사랑’에 대한 어떤 미사여구보다 논어에 소개된 ‘애지 욱기생’이라는 말이 사랑과 생명에 대해서 표현된 말 중에 가장 함축적이며 압권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 논어에서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은 음악의 하모니와도 같다고 하였다. 모든 이에게 다 화하되, 그러나 각기 다른 성격 때문에 다 같지는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기에 서로를 위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자신 스스로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며 잘 융화시켜 나갈 때, 한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빛깔은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발산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배는 인간의 생명과 그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책임의식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본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신적 신전

국립박물관 Museum Nasional (신관 2층 후관 / 신관 4층 도자기관)

사공 경(한*이니문화연구원장)

줄 지어 늘어선 기둥을 통해 국립박물관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기둥들이 말을 걸고 있다. 우리를 지켜보는 그 기둥을 가로질러 유물의 숲으로 들어간다. 유적이 아니라 유물들. 문화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것들. 역사의 주인은 사라졌지만 삶은 남아 시공을 넘어 현재로 건너 와 있다. 각 유물들은 멀리서 통일되는 긴 메아리처럼 시간의 향기와 색채로 서로 응답한다. 때때로 느껴지는 숙연함과 신비스러운 속삭임으로 말을 건네는 신관의 목표는 국가의 기본을 반영하는 “통일 속의 다양한 문화” 이다. 이처럼 국립 박물관은 국가와 민족의 보고(寶庫)이며 인도네시아 문화의 정수를 상징하며, 명실 공히 그들의 정신적 신전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신관은 2007년 6월 20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BY) 대통령에 의해 낙성되었다. ‘상 건물(Gedung Arca)’로 불리는 신관은 각층의 주제가 다르다. 즉 1층은 인간과 환경, 2층 전관은 공학 및 과학, 경제에 관한 것이다. 9월호에 다룰 2

층 후관은 사회 조직 및 주거지 유형을, 4층은 도자기 유물에 관해 전시한다.

2층 후편 시대별 사회 조직과 거주지(주거지) 유형 편사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또 변화할까? 인간은 다른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는 역할, 집단과 조직, 규범 등을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2층 전시관 뒤쪽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조직과 계층에 관한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한다. 즉 옷차림과 액세서리 등이, 남녀 혹은 직무 등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선사 시대



부장품과 유물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또는 지위를 알 수 있다. 구슬은 초기 금속 가공시대에 유래된 유물이며 화려한 다양색 구슬은 목걸이로 만들어졌으며 주로 무덤에서 발굴됨으로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중

요한 사료가 된다. 흙으로 빚어 만든 물 주전자 끈디(kendi)는 앞부분이 부서진 상태로 동누사땡가라에서 발견되었다. 안에는 조개 화석과 모래가 들어있고 묘지에서 발견되어 무덤에 들어간 유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목표와 과업을 달성하는데 역할과 지위가 있음으로 효율적으로 사회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힌두교-불교 시대



계층이 직업과 직위에 따라 정해졌다. 자바 섬에 있는 왕국, 특히 마자빠힛 왕국에서 Rsi란 특정 사회가 존재하였다. 게다가 7세기에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에서 유래된 바뚜(Batu) 비문에 왕의 역할은 나라를 지도하고 백성들을 복종시켜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왕 아래에 왕자 왕태자와 섭정, 사

령관, 판사 등 다른 직위가 많았다고 한다. 동부 자바의 말랑에서 발견된 칸주후란(Kanjuruhan) 비문(760년)은 가자야나(Gajayana) 왕이 아가스띠야(Agastya) 사원의 비문을 검은 돌로 교체하는 것을 기념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원래 아가스띠야 비문은 백단나무로 되어 있었다. 이 비문은 고대 자바어와 산스크리트어로 적혀 있다. Basrelief Batu(14c-15c)는 돌에 얹은 양각으로 마자빠힛 시대의 농경생활과 강가에 있는 논과 계곡, 언덕 등 자연에 대한 것이 새겨져 있다. 섬세하게 예술적으로 돌에 새겨진 양각을 보면 계곡 언저리에 피어나는 적막이 바람을 잠재우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3. 이슬람 시대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사회가 발전했으며 귀족과 백성들 간 경제적 격차가 뚜렷해졌으며,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원

과 복식문화가 발전했다. 중부 자바의 꾸두스(Kudus)에 살았던 이슬람교 지도자 Kyai집의 모형의 조각을 보면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읍장 역할도 한 것으로 보아 이슬람 시대에는 정교일치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사원의 모형을 보면 힌두교-불교-이슬람 문화를 혼합하여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붕이 3층으로 구성되며 제일 꼭대기 지붕은 불교사원의 스투파(stupa) 모양을 닮았다. 3층 지붕은 발리와 롬복(Lombok)에 있는 사원과 같다. 이로써 힌두교와 불교에 바탕을 두고 이슬람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식민지 시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네덜란드와 유럽 사람들을 포함한 상류층, 중국과 아랍, 인도 등 외국 상인들을 포함한 중산층, 종교인, 자바 지방 관리의 후손, 평민, 노예 등의 계층으로 나누어졌다. 네덜란드 사람은 인도네시아 인들과 달리 시내, 즉 요새 주위에 살며, 사용한 가정 제품도 특별하고 우아해 보였다. 전시된 크리스털 잔은 17세기 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포도주와 맥주를 마실 때 사용한 잔인데 지금 사용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유리에 네덜란드 범선도 그려져 있고 동인도 회사의 복지를 뜻하는 글(Oost Indische Compagnie Welvaren)이 네덜란드어로 적혀 있다. 비밀이 가득해 보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보이는 철로 된 함은 독일에서 가져 왔다. 유럽 사람들이 문서와 옷, 보물 등 값진 물건들을 이러한 함에 놓아 보관하였다.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 다스릴 때 발전해온 바로크식으로 꾸며져 있는 철함을 금고로도 사용했다. 딱 짜인 규범을 거부하며 꿈틀대는 바로크 스타일이 가미되어서 철로 만들어졌지만 부드러워 보인다. 바로크의 창조적 뒤틀림이 숨 막히게 하는 철이라는 재료를 뒤틀면서 억눌렀던 감성을 분출했으리라. 1937



년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전시된 동메달은 바타비아를 건설한 Jan Pieter Zoon oen 총독의 탄생일

350주년 (1587년-1937년) 기념물이다. 본격적으로 식민시대를 연 악독한 독재자의 탄생 기념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역사관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 본다. 과거의 발자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아픔과 상처를 아몰려 새살을 돋게 하는 것이 역사(歷史)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국민 생활은 귀족과 백성, 농부, 어부 등 사회 계층에 따라 사용한 옷과 장식품, 가정 제품, 교통수단 등이 다르다. 람뽕(Lampung)에서는 왕 취임식 때 후보자가 나무로 된 낮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다. 이 의자에 힘을 나타내는 용과 풍요를 상징하는 새, 비옥, 다산을 표현하는 물고기, 권력을 나타내는 사람의 얼굴 등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상징들은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며, 16~17세기 사용했던 스사꼬 (Sesako)라고 추정된다. 팰렘방 (Palembang)은 비단과 금실로 만들어진 Songket 직물 생산지로 잘 알려진다. 금실의 문양에 따라 사회계층을 알 수 있다. 금실이나 은실로 된 songket 직물은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이기도 하고, 중요한 가족 행사 때 입는 세습되는 유산이기도 한다. 또 죽순 문양은 악령에서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쓰르팔리 (Sertali)는 북 수마트라의 바탁 까로(Batak Karo) 귀족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머리 장식품이다. 은으로 도금되었으며 물



소 뿔과 바탁 까로 전통가옥 문양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물소와 가옥이 중요한 자산을 알 수 있다. 결혼식 때 신부가 머리에 쓰르팔리를 쓰고, 신랑은 목에 쓰르팔리 라양 라양이라는 목걸이를 한다. 게다가 신부는 까라부 꾸둥 꾸둥이라는 귀걸이도 한다. 이 3개는 결혼식 때 반드시 착용하는 장식품이라고 한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무당도 역시 쓰르팔리를 쓰고 치료를 한다. 이처럼 쓰르팔리는 국민생활에 중요하고 물려주는 유물이 된다.

의류는 보호 기능에서 사회 계층과 명성을 상징하는 기능으로 변했다. 문양과 색상, 직물의 품질 등에 따라 사회 계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귀족들은 뾰달람안 (pedalaman) 바떡을 입는 반면에 자바의 북쪽 해안 지역, 즉 마두라 (Madura)와 뾰갈롱안 (Pekalongan), 그르식 (Gresik), 찌르본 (Cirebon), 라슴(Lasem)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뾰시시란(pesisiran) 바떡을 입는다. 바떡 뾰시시란은 해변과 중국과 유럽에서 영향을 받은 문양이 특징이다. 뾰달람안 바떡보다 색깔이 더 화려하다. 바탁 토바 (Batak Toba) 사람들은 울로스 라기 이둡 (Ulos Ragi Idup) 직물을 값진 것으로 여긴다. 보통 생일, 결혼식, 장례식 등, 통과 의례 때 남녀들이 울로스를 입는다. 여자는 가슴에서 허리까지 울로스로 덮고, 남자는 어깨를 덮는다. 홍백 울로스가 제일 값진 것으로 불행과 악령에서 보호해준다고 믿는다. 또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울로스를 준다. 직물에 다는 유리구슬은 humbolt만과 스타니(Sentani) 호수에 살고 있는 파푸아 사람에게 값진 것이다. 특히 스타니 호수에 사는 사람들은 구슬 팔찌와 돌도끼 외에 낡은 유리구슬을 결혼지참금으로 사용한다. 특별한 모양과 색상의 구슬이 힘을 가져서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종족과 무당만 입을 수 있다고 믿는다. 구슬로 된 앞치마 모양의 커버는 춤을 출 때 여자가 사용한다. 장식품은 인도네시아 민족에게 직물 유물처럼 중요하고 사회적·종교적 의미와 기능을 가지며 대대로 물려주는 유산이 된다. 중부 칼리만탄의 다약 아주 (Dayak Ngaju) 종족이 의식 때 사용한 의자는 용(지옥)과 코뿔새(천국) 조각이 있어 아소 (Aso)라고 한다. 한 남자가 뱀을 손에 들고 의자 받침대를 받치고 있으며 아래는 용에 둘러싸여 있다. 이는 인간세계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세계라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상이르 탈라우트 (Sangir Talaud)의 신부가 사용하는 머리쓰개는 배 모양이고 대모갑(玳瑁甲)으로 만들어졌다. 남부 술라웨시의 상이르 탈라우트에서는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두라 여자들이 특별한 날이나 행사 때 은으로 된 발찌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담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전시되어 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 인들은 시간을 즐기면서 시리를 씹는 관습이 있다. 주로 결혼식과 손님을 반길 때 시리를 많이 준비해서 같이 먹는다. 시리 먹는 관습은 친절함과 연대감을 표현한다. 전시된 타구(唾具)는 시리를 씹을 때 침을 뱉는 그릇이다.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유럽 영향을 받은 덩굴손과 꽃문양이 새겨져 있다. 남자들은 특별한 날에 담배를 전시된 대나무로 된 담뱃대로 번갈아 피우면서 가까워진다. 시리를 씹는 것처럼. 정이 많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가정용품 누산따라(인도네시아군도) 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특히 흙과 나무, 청동으로 만들어진 가정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 나무로 된 이 접시는 파푸아의 Kaiserin Augusta 강에서 발견되었는데, 검은색 타원으로 주로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한다. 파충류 문양이 조각된 것으로 보아 강가에 파충류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흙으로 만들어진 물 주전자(jamu)를 담기도 하고 결혼식 때 사용하기도 한다. 주둥이가 2개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신부상으로 미루어 보아 영원한 결혼을 상징한다. 예나지금이 나 인간은 영원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는 듯하다. 권위의 상징 지도자의 권위는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상징들을 지니고 있으면 힘이 더 강해지고 현명해 진다고 백성들이 믿었다. 은으로 만들어진 칼집으로 덮이는 전시된 꼬리스는 관을 쓴 거인과 덩굴손으로 조각되어 있다. 전통 옷을 입을 때 남자들은 허리 뒤쪽에 끼워 넣어 차기도 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한다.

가옥 형태 마을은 주로 촌장이 지도하며, 중심부와 논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거주지가 된 중심부는 종교의식과 마을 정부행사를 행하는 곳임으로 전통 회의실과 시장(pasar), 촌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통 회의실(Balai Adat)은 마을 사람들이 문제와 이슈를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또 독특한 전통가옥은 일반적으로 나무와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형태가 무대와 같다. 서부 수마트라 빠당 촌장은 가당(Gadang) 전통가옥에 살

고 있다. 이 가옥의 지붕을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코끼리’라고 부른다. 벽에 보석이 붙어 있어서 주인이 귀족임을 알 수 있다. 모계사회로 일가가 이 집에 같이 산다. 강에서 생활을 하는 남부 수마트라의 팔렘방(Palembang) 사람들은 나무로 만들어진 뗏목 집을 지어 수상가옥에 사는데 귀족일수록 큰 집에 산다.



교통수단은 자연환경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바다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배가 많이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마차도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 남부 칼리만탄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에서 사용했던 용과 코끼리의 두상이 혼합된 뱃머리 장식은 왕족의 배에 장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용모양과 화려한 색깔에서 중국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용맹 기상한 용은 물과 관계가 있고 물은 비옥한 삶을 상징한다. 코끼리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던 힌두 신 가네샤를 의미한다. 이는 왕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공주와 귀족 여성들이 타고 다닌 가마를 보면 어느 곳에서나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된 샌들은 북부 술라웨시의 몽온도우(Mongondow)에서 성인이 될 아이가 신고 다닌 가벼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샌들은 인도네시아 인들에게는 일상이다.



어부 사회 지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는 직업 별로 나누어진다. 전시된 낚시 바늘과 그물, 어망, 부부(bubu), 배 등 항해 장비를 보면 어부 사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묶여진 등나무나 대나무로 만들어진 부부(bubu)를 해저에 놓고 물고기를 잡는다. 전시된 란짱꾸닝 (Lancang Kuning) 배는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들어왔다. 추수 의식 때 모형으로 만들어 신에게 줄 공물을 놓는 그릇으로도 사용된다. 술라웨시의 부기스족이 사용했던 빠니시(pinisi) 배도 전시되어



있는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스맛족도 전통 배를 스스로 만들고 사용했다. 파푸아의 강과 호수를 건너갈 때 5-10명의 아스맛 사람이 각자 노를 저어 한통의 나무로 된 배를 같이 탔다. 제일 앞에 지도하는 자가 방향을 가리켰다.

또한 사회 계층화 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하여 왔다. 불가피하게 사회적 희소 가치를 차등하게 분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기득권의 권력 때문에 계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불평등 현상에 대해 사회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에 비해 일상의 노곤함이 온 몸에 배어 있으나 종교로 인한 관습으로 부요하게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금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상식적 믿음에 역행하고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우리 사회보다 계층이동이 힘든 그들이지만 쫓기는 삶을 자초하지 않는다.

신관 4층/도자기 전시실

구관 도자기 전시실(한인뉴스 5월호 게재)에 이어 신관 도자기 전시실에 들어오면 구관처럼 중국의 다양한 왕조에서 유래된 각양각색 도자기가

눈에 띈다. 처음에 당나라(618~906년)는 향료와 꽃병 같은 종교의식에 필요한 도자기를 만들었다. 청나라가 다스릴 때 해외 시장 경쟁에서 최고의 품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 처음에는 흰색과 갈색, 회색밖에 채색하지 않았지만 기술이 좋아져서 유약을 칠해서 뽀짝뽀짝하게 만들었다. 명나라가 청자 녹색을 처음으로 만들어 칠했다. 차차 도자기 기술도 높아지고 항아리와 물통 같은 더 큰 가정 제품을 만들었다. 전시된 각 나라의 도자기들은 주로 무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 그러나 제일 기술이 뛰어난 것은 역시 중국 도자기였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 치료법과 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쪽 벽에 중국의 선박인 펙싱 (Teksing) 배의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판이 걸려 있다. ‘진실한 별’을 뜻하는 펙싱 배는 중국 상품을 운송한 배였다. 1822년 1월 14일 인도네시아로 출발한 지 몇 주 뒤인 2월 5일에 수마트라의 방

카 블리둥 (Bangka Belitung)에 있는 블라사 (Blasa) 바다에서 암초에 부딪쳐서 가라앉았다. 다행히 영국 배의 도움으로 180명의 선원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이 배는 ‘동쪽의 타이타닉’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999년 5월 12일 영국의 Michael Hatcher 보물 탐구자가 해저에 가라앉은 펙싱 배를 찾아서 350여개의 중국 도자기를 끌어 올렸다고 한다. 도자기 외에 177년 전에 죽은 선원들의 해골도 찾았다. 2000년 11월 독일에서 보물을 경매하여 인도네시아는 찾은 보물의 반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찾은 도자기는 대부분 송·





Singkawang

당 · 명 · 청나라의 것인데, 오래된 시간 수중에 가라앉은 도자기는 색깔이 흐려졌고, 해양식물로 덮이거나 해양식물이 자라서 깨끗하게 씻어지지 못했다. 가라앉은 배에서 찾은 보물이 도자기 외에 금과 주석이 있었다. 게다가 물통 안에 평평하고 중간에 구멍을 뚫은 껌 (kepeng) 동전이 많이 들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도자기도 있다. 즉 서부 칼리만탄의 싱카왕 (Singkawang) 지역에 살았던 중국 사람들이 항아리를 많이 만들었다. 그들은 무역하러 왔다가 귀국하지 않고 싱카왕에 살게 된 중국인이었다. 그들은 중국에서 흙을 가져와서 항아리를 빚었다. 만든 항아리는 과일과 쌀, 야채 등 식료품을 보관하는 통으로 사용했다. 다음 유리 장에 전시된 베트남의 도자기는 금붕어와 꽃, 새 등 베트남의 문화를 상징하는 문양이 특징이다. 한편, 태국에서 유래된 도자기는 대부분 물통, 항아리, 주전자 등 가정 제품으로 만들었다. 코끼리와 뿔 수 없는 듯 코끼리 문양이 바로 태국 도자기의 특징이다. 해외 도자기는 각 나라 문화에 따라 문양이 서로 다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벚꽃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 일본 도자기는 필요한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왔던 도자기에서는 언제나 아늑한 향기가 있다. 도자기는 머나먼 길을 걸어온 구도자(求道者)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지는 원초적 그리움 때문이리라.

국립박물관은 이 지상의 가장 오래된 고독한 시간

으로 우리를 옮겨 놓는다. 그곳은 거대한 역사를 숨기고 있는 유적지가 된다. 또한 유물과 함께하는 박물관은 시간의 흔적을 발굴하는 곳으로 인류 보편적인 우리들의 뿌리가 있는 우주적 공간이다. 그 공간은 수십만 년 전의 외로움을 품고 있다. 박물관에 숨겨진 이 거대한 고독은 잠들지 않는다. 그래서 외로울 때 문화의 나신을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역사를 읽으며 성숙해 가는 자신과 조우하려고 말하고 싶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만나는 노을은 장엄하다.

Museum Nasional

Jl. Merdeka Barat No.12 Jakarta Pusat

Tel : 3811551 / 3447778

화 - 금 : 08:30-16:00

토 - 일 : 08:30-17:00

월, 공휴일 : 휴관

입장료 : Rp 5000 (성인), 2000 (어린이)

/ 외국인 10.000

한국어 가이드: 셋째 토요일 9:30 (접수 인도웬)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상속제도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자신이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과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수래 공수거,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존재라는 철학적인 표현이 인간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재산과 이름과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추억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 죽기 전에 자신이 직접 재산을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언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살아 있을 때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 뒤에 남은 유족들이 법규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대기업의 총수의 유족들이 유산 분배 때문에 법정 투쟁을 한다는 기사가 메스컴에 나오고 있지만, 둘러보면 유산 상속 문제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평범한 이웃들이 집안 어른을 보내고 나서 상속 문제로 불화하여 의절하고 지내거나 법정 싸움을 하는 집안도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상속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민법과 국제 사법 법리에 따라 상속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1. 상속의 주체

죽어서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친족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 상속의 객체

상속의 객체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이다. 그러므로 상속하면 재산상속을 의미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받는다고 하면 재산상의 권리만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재산상의 의무도 물려받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물려 줬으면, 회사의 주식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채무도 물려받아야 한다. 법에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받으면 반드시 재산상의 의무도 상속받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회사의 주식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뜻은 법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채무액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사의 주식 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회사의 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되므로,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을 거부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3. 재산 상속의 발생 시기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산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시기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기간 만료 시부터 상속이 개시된다고 본다.

4. 상속의 종류

민법상에 재산 상속은 지정 상속과 법정 상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정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상속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자기 유산을 어느 특정인에게 상속해 주라는 지정 상속이 없는 경우에 민법 혹은 국제사법의 법리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는 상속을 의미한다.

5. 유언

5.1. 살아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유언은 법적으로 설명하면, 재산에 관한 사항이나 비재산에 관한 사항이나 유언자가 사망 시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자기의 뜻을 상대방이 없이 유언자가 남기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자는 하더라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해야 하며 대리유언은 인정받지 못한다.

5.2. 유언 사항

모든 유언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항이 있고 유언에 남겼어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언사항을 민법은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 5.2.1. 재단법인의 설립(제47조 제2항)
- 5.2.2. 친생 부인(제850조)
- 5.2.3. 인지(제859조 제2항)
- 5.2.4. 후견인 지정(제931조)
- 5.2.5.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제1012조 전단)
- 5.2.6. 상속재산 분할금지(제1012조 후단)
- 5.2.7.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제1093조)
- 5.2.8. 유증(제1074조 이하)
- 5.2.9. 신탁(신탁법 제2조)

5.3. 유언의 방법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법은 :

- 5.3.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5.3.2. 녹음에 의한 유언
- 5.3.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5.3.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5.3.5.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6.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유언자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써야 한다. 타자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자필증서가 되지 않는다. 유언서에 유언자가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쓰고 작성 년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하고 서명, 손도장 혹은 날인하면 자필증서 유언이 성립한다. 작성 년월일이 없는 유언서는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이 간단하고 가장 비밀적으로 할 수 있으며 유언 내용 수정도 용이하나 반면에 분실, 은닉 혹은 파기의 위험이 있다.

7.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기의 성명, 녹음 년월일 및 유언 내용을 구술로 녹음하고 녹음에 참여

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로 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 간편하고, 몸이 성하지 못하여 자필로 필기하기 어려운 사람도 쉽게 녹음에 의한 유언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비밀이 확보되거나 분실, 은닉, 파기, 변조, 위조, 소음 등의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유언 방법이다.

8.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에 낭독해주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혹은 수인하고, 공증인이 서명 날인 하면 성립 하는 유언 방식이다. 분실, 멸실 혹은 변조의 위험이 없으나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9.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이 쓰여 있는 증서(자필이 아니거나 작성 연월일이 없어도 괜찮다)에 성명을 기입한 후에 봉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된다. 그러나 비밀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을 갖추고 있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10.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급박하여 이미 설명한 상기 4종의 유언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일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1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두로 말하고, 유언 내용을 들은 증인이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한대로 필기 후 낭독해 주고,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내용의 확실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혹은 기명 날인하여 유언을 성립시키는 방식이다.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에 참여한 증인 혹은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써 한다(가사 소송법 제2조 제1항).

11. 유류분(법정상속 지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법으로 정해 놓은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뜻한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사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라는 유언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남용하면 경제적으로 피상속자의 보호아래 있던 근친 유족들이 피상속자 타계 후에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재산에는 근친의 잠재적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친이 피상속자 사망 후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근친 상속자의 몫으로 정해 놓았다. “예”를 들면, 부인과 자녀를 유족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은 모든 재산이 값있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사망 후에 모든 유산어느 장학 재단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모든 유산을 피상속자가 지정한 장학재단에 넘길 수 없으며, 법이 정한 부인과 자녀의 몫을 반드시 유가족에게 넘겨야 한다. 피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유언에 의해 피상속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법정 상속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인 간에 형평이 맞지 않은 상속을 했을 때 적용이 된다.

11.1. 유류분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자

민법에 유류분 권리자로서 분류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방계 혈족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미 잉태되어 어머니의 배 속에 있는 태아는 민법에서는 이미 태어난 사람으로 간주되어, 태아에게 유류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는 경우에는 없었던 존재로 간주된다.

11.2. 유류분의 비율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이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호주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상속인 간에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나, 처의 사망으로 인한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과 처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을 하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처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나, 처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을 더 받도록 되어 있다.



11.3.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은 상속 개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 개시 1년간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2. 재산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12.1. 제1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자녀 및 손자녀)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법률상의 부부만 배우자로 인정되며 사실혼의 관계에 있더라도 호적에 부부로 등재되어있지 않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12.2. 제2 순위

피상속인인 직계 존속(부모와 조부모)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12.3. 제3 순위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12.4. 제4 순위

피상속인이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12.5.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수위로 되며 같은순위에 있는 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2.6. 배우자는 피상속자의 직계 비속 및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12.7.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대습 상속).

13. 상속 결격자

법적으로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 자격이 박탈되어 상속의 자격이 없다.

- 13.1.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려고 한 자.
- 13.2.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13.3.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철회를 방해한 자.
- 13.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13.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14. 기여 상속

공동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그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 결정시에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부모의 사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오래 동안 근무하면서 부모를 도운 자녀, 부모의 채무를 갚아 준 자녀, 혹은 부모를 오래 동안 부양하거나 간호한 자녀 기여분이 있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기여분의 크기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여분의 산정은 기여의 시기, 기간, 방법, 내용,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참작한다.

15. 국제 가족의 상속 문제

이상에서 설명한 사항은 피상속인이 한국국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인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달라진다. 인도네시아 상속법은 이원화 되어있다. 이슬람 신자에게는 이슬람 상속법이 적용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카톨릭, 불교 및 힌두교)에게는 민법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상속법에서도 상속은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에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명기하고, 상속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상속법으로 처리하라고 기록한다.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공동 상속인 간에 재산 상속에 관하여 이견이 생기면 해결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국적이나 종교에 상이 있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15.1. 사례 1

A씨는 한국 국적이며 한국에 별거 중인 부인 B씨와 성인이 된 아들 C씨를 한국에 두고, 인도네시



아에 와서 사업을 하다 만난 인도네시아 여성 D씨와 이슬람법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하여 딸 2명을 낳아 살다가 병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타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사후에 발견됐다. A씨가 유언이 없이 갑작스럽게 타계한데다 고인이 한국 국적이지만 이슬람에 입교하여 이슬람 법에 따라 결혼을 하고 이슬람법에 따라 종교 사무소에서 발급한 결혼증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인의 유산은 이슬람법에 따라 모두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인 부인 D씨에게 상속되었고 한국에 있는 별거 중인 부인 B씨와 아들 C씨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했으며, 시신도 인도네시아 가족이 거두어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식으로 매장되었다.

15.2. 사례 2

한국인 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의 부인 B씨는 한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큰 아들 C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 D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출가한 딸 E씨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A씨가 유언을 남기고 타계하면 재산 상속이 유언대로 배분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인 B, C, D와 E에게 재산 상속이 법정 상속으로 배분이 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A씨가 비 이슬람 신자인 경우에는 일반법

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딸 E씨도 상속받을 기회가 있으나, A씨가 이슬람 신자인 경우에는 관할권이 종교 법원에 있으며 딸 E씨는 딸에게 상속을 인정치 않는 이슬람법 때문에 상속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부인 B씨, 큰 아들 C씨와 둘째 아들 D씨만 상속을 받게 된다. 해외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진다. 인도네시아 상속법과 현지법을 공동으로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가 3심제 판결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결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16. 결론

대부분의 나라는 유언 상속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던지, 유족들에게 상속을 하던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던지, 상속 발생 시 고인의 재산은 고인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신이 모은 재산이 자신의 사후 자신의 바라는대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면 심신이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특히 배우자와 자식들의 국적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비 요건을 갖춘 유언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글과 떠나는 여행

정글만리 | 조정래 저 | 해냄



『정글만리』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 비극을 예리하게 그려낸 조정래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총 3권으로 출간되는 이 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약 3개월여 동안 일러스트와 함께 매일 연재되며 독자와 함께 호흡해왔고, 1백만 회 이상의 높은 조회수와 1만 건 이상의 댓글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작가는 『정글만리』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의 중심이 되며 G2로 발돋움한 중국의 역동적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들과 짝 맞춘 농공민들의 모습 등 경제개발의 어두운 이면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다섯 나라 비즈니스맨들과 얽히고설킨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서구인의 시각으로도 한국인의 시각으로도 쉽사리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과 배경이 소설 속 화자들의 입을 빌려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되면서, 우리 안의 이중적 시선과 편견, 복잡하게 뒤섞인 한중일의 근현대사로 형성된 민족감정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독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 21세기 한국과 한반도 주변의 경제적 정치적 흐름을 따라가며 진실과 정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 비전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 손미나 저 | 웅진지식하우스

천의 얼굴을 간직한 ‘세계인의 수도’ 파리, 그것도 에펠탑이 코앞에 보이는 곳이다 짐을 풀었지만, 첫날부터 날씨도 사람들도 웨이더까지 냉랭하기만 하다. 더군다나 가슴속에서 계속 열망하던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글은 한 글자도 써지지 않는다. 여정 속에 여행 작가에서 소설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맞물리며,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과 끝까지 자신의 희망을 관철해 나가는 작가의 인내심을 엿볼 수 있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 무라카미 하루키 저/양역 관역



무라카미 하루키가 3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로 출간 이후 7일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프란츠 리스트 「순례의 해」의 간명하고 명상적인 음률을 배경으로 인파가 밀려드는 도쿄의 역에서 과거가 살아 숨 쉬는 나고야, 핀란드의 호반 도시 헤멘린나를 거쳐 다시 도쿄에 이르기까지, 망각된 시간과 장소를 찾아 다자키 쓰쿠루는 운명적인 여행을 떠난다. ‘색채’와 ‘순례’라는 소재를 통해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솔직하고 성찰적인 이야기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르웨이의 숲』 이래 처음으로 다시 집필한 리얼리즘 소설이다.



인페르노 | 댄 브라운 저/안중설 역

댄 브라운의 4년 만에 신작. 3년이라는 집필 기간을 거쳐 완성된 《인페르노》는 ‘빠른 진행’과 ‘간결한 문체’, ‘매력적인 소재’라는 댄 브라운만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 있는 소설이다.

이탈리아의 중심에서 주인공 로버트 랭던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고 미스터리한 문학 대작, 단테의 《신곡》의 끔찍한 세계로 끌려들어 간다. 아름답고도 두려운 무대인 피렌체에서 그는 잔인한 비밀 집단과 마주하며 고전 예술과 비밀의 통로, 미래 과학과 연결되는 수수께끼들을 붙잡고 싸운다.

* 숨어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빅 데이터에서 찾아낸 70억 욕망의 지도 | 송길영 저 | 쌤앤파커스
대한민국 최고의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저자는 빅 데이터 분석이 어떤 효용이 있

으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면서 자동차, 전자, 식음료, 패션, 제약, 병원, 미디어, 홈쇼핑 등 산업의 전 분야를 망라한 국내 실제 빅 데이터 분석사례 20여 건을 천일야화처럼 끊임없이 풀어놓는다. 아울러 선거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셀러브리티의 이미지 변화 등, 우리 삶 전반에 투영된 대중의 생각과 불만, 욕망을 데이터에서 뽑아내 해석하는 법을 설명한다.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세상을 바꿀 엉뚱한 인생 제안 | 유종필 저 | 메디치미디어

사회가 정한 틀, 관습과 상식을 벗어던지고 남과 다른 스타일로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선을 넘었다가 자칫 잘못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의 익숙함 때문에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조금은 남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색깔과 꿈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도 보자. 때로 실패하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남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99°C : 99도씨 | 호아킴 데 포사다 저/이의수 역

《마시멜로 이야기》로 350만 한국 독자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던 호아킴 데 포사다가 2년 만에 돌아왔다. 전작에서 ‘특별한 오늘’을 선사했던 그가, 이번에는 《99°C》를 통해 내 안의 가능성을 찾아 가슴 뛰

는 삶을 살라고 조언한다. 일곱 살 때 당한 교통사고로 자신감을 상실한 채 한없이 움츠러들던 열일곱 살 올리버가 노래 오디션을 통해 자신 안에 숨어 있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담고 있다. 올리버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내면에 감춰져 있던 99%의 가능성을 믿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호아킴 데 포사다는 우리에게 필란이나 오웬, 앤드류, 줄리엣과 같은 친구나 스승이 없다 해도 실망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나’라는 친구가 살고 있지만, 정작 나는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며, 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99도가 아니라 100도로 끓여야 한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관계 심리학 | 테보라 잭 저/이수연 역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이 책은 자신의 원래 기질과 성격의 장점을 발견해서 인간관계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해법에 맞춤형 각 케이스별 상세 예시를 제공하여, 업무와 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말한다.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과 소통하기, 인간 관계 맺기에서 아주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면 당연히 타인도 더 잘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비슷한 점을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유서영
021-2902-1714(직통105) / 0821-2282-8352 /
berrius@yes24.co.id / www.yes24.co.id

YES24.COM
INDONESIA

2013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명예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3	20,000	
2	한인회 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20,000	
3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3	10,000	
4	한인회 부회장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13	5,000	
5	한인회 부회장	김영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3	5,000	
6	한인회 부회장	김주철	PT. STAR CAMTEX	2013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희년	PT. ETRADING SECURITIES	2013	5,000	
8	한인회 부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3	5,000	
9	한인회 부회장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2013	5,000	
10	한인회 부회장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3	5,000	
11	한인회 부회장	이진수	PT. SUNG BO JAYA	2013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2013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조용우	외한은행	2013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최광수	PT. BIG STAR	2013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최상학	우리은행	2013	5,000	
16	한인회 부회장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2013	5,000	
17	한인회 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3	1,000	
18	한인회 자문위원	김석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3	1,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김영만	PT. KOREA INDONESIA PETROLEUM CO.,LTD	2013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2013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우재	PT. KOIN BUMI	2013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박현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3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NESIA	2013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2013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오세윤		2013	995	
26	한인회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2013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13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3		10,000,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배상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3	2,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3	958	
31	한인회 자문위원	조용준	PT. TIGA BINTANG JAYA	2013		10,000,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최정남	PT. GLOBAL FIBER INDO	2013	1,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2013	1,000	
34	한인회 이사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2013	1,000	
35	한인회 이사	구자성	일요신문	2013	1,000	
36	한인회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3	1,000	
37	한인회 이사	김경국	PT. N E S	2013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 액	
					USD	IDR
38	한인회이사	김 달 수	PT. KIDECO JAYA AGUNG	2013	1,000	
39	한인회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3	1,000	
40	한인회이사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3	1,000	
41	한인회이사	김 상 태	SMS GROUP	2013	1,000	
42	한인회이사	김 성 국	PT. PERTA SAMTAN GAS	2013	1,000	
43	한인회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3	1,000	
44	한인회이사	김 종 현	PT. KOIN BUMI	2013	1,000	
45	한인회이사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3	1,000	
46	한인회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3	1,000	
47	한인회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3	1,000	
48	한인회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3	1,000	
49	한인회이사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3	1,000	
50	한인회이사	서 영 율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3	1,000	
51	한인회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IMER	2013	1,000	
52	한인회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3	1,000	
53	한인회이사	안 흥 제	PT. KOLON INA	2013	1,000	
54	한인회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3	1,000	
55	한인회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3	1,000	
56	한인회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3	1,000	
57	한인회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3	1,000	
58	한인회이사	이 상 일	PT. U I B	2013	1,000	
59	한인회이사	이 석 태	PT. U F U	2013	1,000	
60	한인회이사	이 종 역	KOREAN AIR LINE	2013	1,000	
61	한인회이사	이 종 현	PT. LEO KORINSIA	2013		10,000,000
62	한인회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3	1,000	
63	한인회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3	1,000	
64	한인회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3	1,000	
65	한인회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3	1,000	
66	한인회이사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3	1,000	
67	한인회이사	정 주 성	PT. DEASUNG HI-TECH	2013	1,000	
68	한인회이사	정 철 주	PT. DONG-IL INDONESIA	2013	1,000	
69	한인회이사	조 호 신	PT. SONERGY	2013	1,000	
70	한인회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3	1,000	
71	한인회이사	현 정 규	PT. MEKAR SAMMI JAYA	2013	1,000	
72	한인회이사	홍 기 호	PT. AURORA INT'L CO.	2013	1,000	
73	한인회이사	황 윤 흥	자카르타경제일보	2013	1,000	
총 금 액					\$169,953	Rp30,000,000

9월의 영화 추천작



관상이라는 독특한 소재에서 출발해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스토리를 탄생시킨 캐스팅 만으로도 믿고 볼 수 있는 영화로 실제크기로 만든 경복궁 근정전 세트와 웅장한 스케일과 장인들이 직접 만든 소품으로 섬세한 디테일까지 담아낸 영화 <관상>

영화 <관상>에서는 역광의 얼굴이나 성품이 아니라 등이나 걸음걸이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역광이나 뒷모습은 운명을 거스르거나 개척한다는 뜻과 관상의 역설을 담고 있다.

<관상>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 처남 '팽헌', 아들 '진형' 과 산속에 칩거하고 있던 그는 관상 보는 기생 '연홍' 의 제안으로 한양으로 향하고, 연홍의 기망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하게 된다. 용한 관상쟁이로 한양 바닥에 소문이 돌던 무렵, '내경' 은 '김중서' 로부터 사헌부를 도와 인재들 등용하라는 명을 받아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양대군' 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



<잡스>를 통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 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또한 잡스의 걸음걸이 따위를 그대로 연기한 에쉬튼 커처의 모습을 떠나, 가끔씩 보이는 에쉬튼 커처 그대로의 멋진 모습을 보는 재미.

<잡스>



세상을 바꾼 천재 vs 대학 자퇴생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vs 불교신자 애플의 창립자 vs 연봉 1달러의 CEO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스티브 잡스 아무도 몰랐던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맨발로 교정을 거니는 괴짜, 자유로운 영혼의 히피였던 젊은 시절의 잡스. 대학을 자퇴하고 절친 스티브 워즈니악과 자신의 집 차고에서 '애플' 을 설립해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 후 남다른 안목과 시대를 앞선 사업가적 기질로 애플을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CEO로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혁신과 완벽주의를 고집하던 그의 성격으로 결국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내쫓기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11년 뒤, 스티브 잡스 퇴임 후 하락세를 걷던 애플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온 잡스는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 혁신을 준비한다.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9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딤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끌라빠가딩)	723 0807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참피온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JAKARTA BIZ DAILY
 Petra Jesa Tower 15th Fl. #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I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kt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현분 현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精과誠과 德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tbn.net.id, doowangjkt@gmail.com

샤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무항생제, 무화학약품, 순수곡물사료
 닭을 행복하게 하는 양계법
 최고의 닭고기 CharmChick

Charm Chick
 Nature's Choice

같이보여도 속부터 걸까지 다른 Quality
 합척은 합닭, 진짜닭입니다

Sucofindo의 무대장관, 무심모래라 인증
 인니 농축선부의 무항생제 인증
 자카르타 주정부의 1등급 품질인증

판매처 **무궁화, K-마트,
 뉴서울슈퍼, 한일마트**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KJ 건축·인테리어

- 1. 사무실전문 인테리어공사
- 2.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 3. 레스토랑 인테리어공사

Tel : 021-7590-6767

HP : 0821-2564-1777

E-mail : choimg21@gmail.com

주소 : FATMAWATI LOTTE MART

RUKO BLOK G/0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쉴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AVENUE	761 313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TO TECHNOLOGY, TO THE WORLD, TO BE THE BEST **기술로! 세계로! 최고로!**



기술의 차이가 접착력으로 평가됩니다

접착력의 작은 차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온 동성화학 신발용 접착제는
신발의 기능성, 생산성, 상품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특별해야 하는 신발용접착제

신발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착화시에는 인장, 굽곡, 복원을 무수히 반복하며 또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됩니다. 동성화학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특별해야 하는 신발용 접착제 품질향상을 위해 20여년간 꾸준한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신발용 접착제 분야 기술인재들의 풍부한 경험과 무한한 연구 개발의지, 철저한 현장테스트, 고객우선의 서비스정신이 창출하는 기술의 차이를 접착력으로 경험하십시오.

- 다양한 소재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 강력한 접착으로 놀라운 고정력을 발휘합니다.
- 작업성이 우수하고 일광노출시 변색이 적습니다.
- 물, 기름, 고열 등 갖가지 환경에 저항성이 강합니다.

Dongsung

NSC Ltd.

A Member of the ICI Group

P.T. DONGSUNG **NSC**

PO.BOX.No.315 Tangerang INDONESIA

Telp. (021) 591 8620 (Hunting), Fax. (021) 591 8624, 591-8915

생산품목: ■접착제 ■폴리우레탄수지 ■항성피혁용 표면처리제
■특수도료 ■검착도료 ■제지용약품 ■유화제 ■폴리올 ■의료부외품

KORINDO Pl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책임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칼리만탄 Poso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